

▶ 내신 기출 문학 비상-상편 ◀

1. 문학의 본질

- (1) 모란이 피기까지는 (66문제)-----1쪽
- (2) 수오재기 (40문제)-----24쪽
- (3) 산속에서 (28문제)-----43쪽

2. 문학의 수용과 생산

- (1) 가는 길 (41문제)-----57쪽
- (2)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51문제)-----73쪽
- (3) 눈물 (38문제)-----112쪽
- (4)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40문제)-----126쪽
- (5) 참새 (13문제)-----157쪽
- (6) 꽃 / 라디오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41문제)-169쪽
- (7) 파수꾼 (40문제)-----190쪽
- (8) 납작납작 - 박수근 화법을 위하여 (45문제)-----221쪽
- (9) 메밀꽃 필 무렵 (26문제)-----242쪽

3. 한국 문학의 성격

- (1) 정읍사 (41문제)-----262쪽

◆빠른 전체 정답-----278쪽

◆해설-----281쪽

교재 버전: 2021.02.01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간음 밭” 분석 명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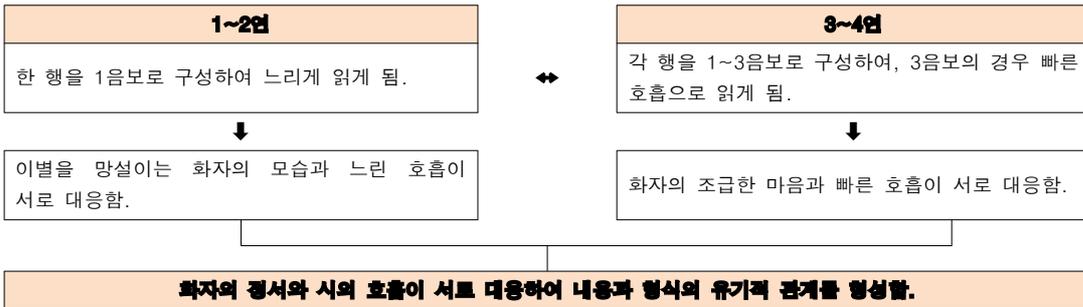
◆핵심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전통적, 민요적, 애상적, 서정적
제재	임과의 이별	운율	내재율(3음보, 7·5조의 민요적 율격)
주제	이별의 아쉬움과 임에 대한 그리움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정 후경(先情後景)의 구조를 취함. 유음과 비음을 사용하여 음악적 효과를 거둠. 객관적 상관물(‘까마귀’, ‘강물’)을/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냄. 시행의 길이와 어조로 화자의 심리를 표현함. 		

◆전체 구성

1연	이별의 안타까움	선경(先情)	이별의 내면적 상황
2연	망설임과 갈등의 심화		
3연	떠나기를 재촉하는 까마귀	후경(後景)	이별의 외면적 상황
4연	따라오라고 재촉하는 강물		

1. 시행 배열과 시적 의미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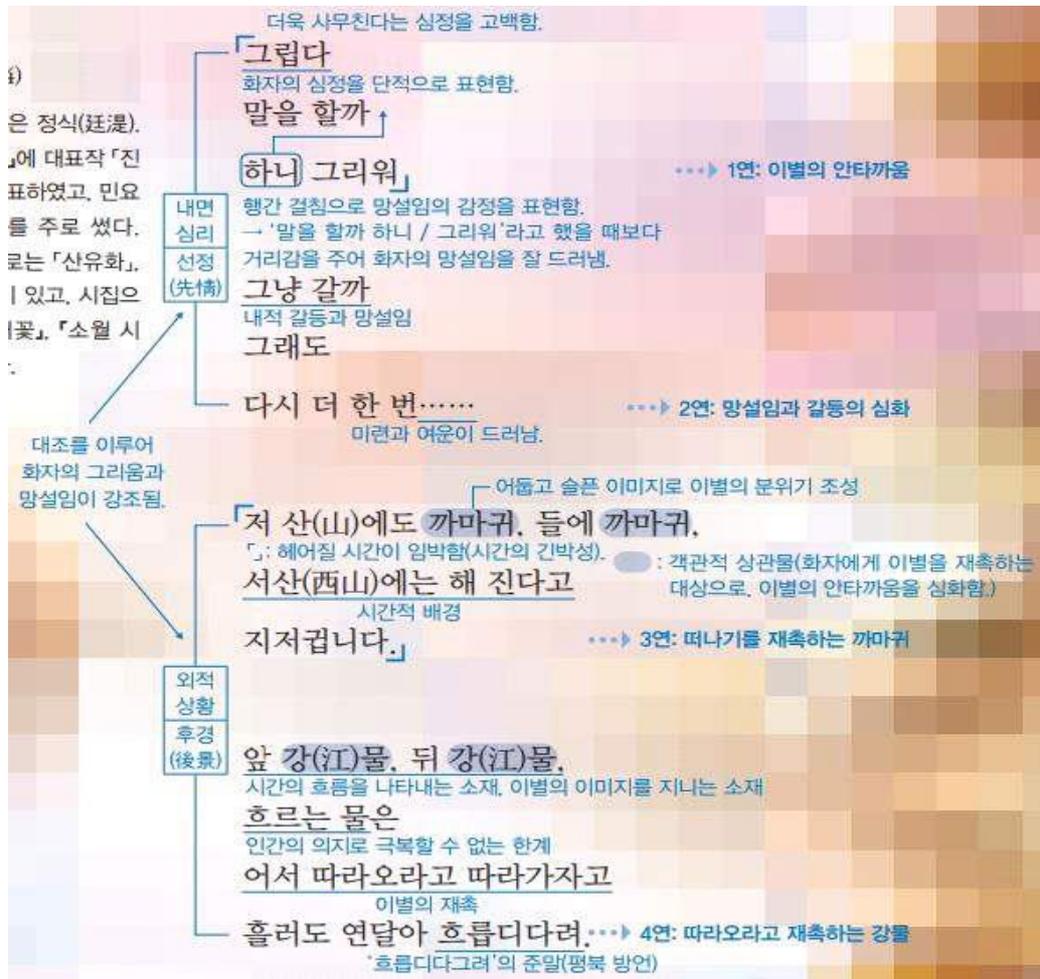


2. '까마귀'와 '강물'의 기능

'까마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둡고 슬픈 이미지로 이별의 분위기를 조성함. '서산(西山)에는 해 진다고' 지저귀며 이별을 재촉함.
'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며, 이별의 이미지를 지님.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하며 이별을 재촉함.

↓

이별을 재촉하는 외적 상황: 이별의 안타까움을 심화하고, 화자의 슬픈 정서를 간접적으로 드러냄.



“가는 길”의 4연 중심 내용

1. 이 작품을 감상하고, 각 연의 중심 내용을 정리해 보자.

1연	이별의 안타까움.	2연	망설임과 갈등의 심화
3연	떠나기를 재촉하는 까마귀.	4연	따라오라고 재촉하는 강물

2-(1) 가는 길 [이론편]

2. 화자가 처한 상황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하여 시어 ‘까마귀’와 ‘강물’이 작품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생각해 보자.

화자가 처한 상황	임과 이별하고, 임을 두고 길을 떠나야 하는 상황임.
‘까마귀’와 ‘강물’의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별을 재촉하는 상황으로, 임과 이별하는 화자의 안타까움과 심리적 갈등을 형상화함. • ‘까마귀’는 어둡고 슬픈 이미지로, 이별의 분위기를 조성함. ‘서산에는 해 진다고’ 지저귀으로써 안타까운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림. • ‘강물’은 끝없이 흐르는 시간 및 이별의 이미지로,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존재임.

3. ㉠은 1연이고, ㉡은 4연의 일부이다. ㉠과 ㉡의 시행 배열을 다음에 따라 정리해 보고, 이러한 시행 배열이 주제 전달에 미치는 효과를 말해 보자.

㉠ 그림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롭디다려.
--------------------------	------------------------------------

	㉠	㉡
운율	한 행이 1음보를 이룸.	한 행이 3음보를 이룸
시행의 길이	3~5자로 비교적 짧음	11~12자로 비교적 길.
호흡의 속도	비교적 느림.	비교적 빠름.



• 이러한 시행 배열이 주제 전달에 미치는 효과: 가 는 한 행에 각각 1음보를 배열하여 낭독의 속도를 늦추고, 그리움과 아쉬움으로 망설이는 화자의 내면적 갈등이 잘 드러나게 하였다. 이에 비해 나 는 한 행에 3음보를 배열하여 낭독의 속도를 높이고, 떠나기를 재촉하여 이별의 정한을 심화하는 외면적 상황을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시행 배열은 ‘이별의 아쉬움과 임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주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4. 시인이 ‘슬픔’을 화자로 하여 ‘기쁨’에게 말하는 형식을 사용한 의도를 작품의 주제와 관련하여 말해 보자.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겨울밤 거리에서 굴 몇 개 놓고 /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굴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 주겠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 주질 않은
 가마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 가마니 한 장조차 덮어 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 이 세상에 내리던 함박눈을 멈추겠다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 추위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걸겠다 /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 정호승, 「슬픔이 기쁨에게」

화자인 ‘슬픔’은 청자인 ‘기쁨’에게 소외된 이웃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참다운 사랑의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즉, 시인은 ‘슬픔’의 말을 통해 주제를 직접적으로 전달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이기적인 삶에 대한 반성과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 번㉢……

저 산(山)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서산(西山)에는 해 진다고
 지저룹니다.

앞 강(江)물, 뒤 강(江)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롭디다려.

- 김소월, '가는 길'

인항고등학교 (인천)

1. ㉠ ~ ㉤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행을 나누어 써서 망설임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 : '그립다'는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이는 시적 화자의 내적 갈등을 표현하고 있다.
- ③ ㉢ : 시적 화자의 망설임이 고조되는 부분으로 미련과 여운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 객관적 상관물로, 화자의 바람과는 달리 이별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⑤ ㉤ : 이별을 피하는 방법으로 입을 뒤따라가라고 재촉하는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인항고등학교 (인천)

2. 윗글의 전개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시어와 반복과 변주로 시적 공간의 탈속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내면의 심리를 먼저 제시하고 외적 상황을 나중에 제시하고 있다.
- ③ 자연 속에서 고고하게 살아가는 대상의 성품을 예찬하고 있다.
- ④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며 장면을 그려내고 있다.
- ⑤ 색채의 대비를 활용하여 대상의 변화를 구체화하고 있다.

주례여자고등학교 (부산)

3. 다음은 윗글의 시행 배열이 내용 전달에 미치는 효과를 탐구하기 위한 자료이다.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서술하시오.

	1, 2연	3, 4연
운율	한 행이 주로 1음보	한 행이 주로 3음보
시행의 길이	짧은 시행	긴 시행
호흡의 속도	(1)	(2)
내용 전달에 미치는 효과	(3)	(4)

<조건>

- (1), (2)는 '호흡이 빠르다', '호흡이 느리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을 것.
- (3), (4)는 문장으로 서술하지 않을 시, 1점씩 감점함.

주례여자고등학교 (부산)

4. '객관적 상관물'의 정의를 서술하고, 윗글에 적용하시오.

(1) 객관적 상관물의 개념 정의

(2) 윗글에서 '객관적 상관물' 두 개를 찾아 쓰시오.

<조건>

- (1) 개념과 관련된 속성 세 가지를 포함시키고 문장으로 서술할 것.

“황만근을 이렇게 말한다” 분석 명단

◆핵심 정리

갈래	단편 소설, 농촌 소설	성격	향토적, 해학적, 풍자적
배경	1990년대, ‘신대리’라는 농촌 마을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계기	‘황만근’의 생애와 그의 행적		
주제	부채로 얼룩진 농촌 현실에 대한 고발과 인정이 메말라 가는 현대인에 대한 비판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傳)’의 형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구성됨. • 1990년대 농촌 현실의 문제점을 고발함. • 이기적인 현대인에 대한 비판 의식이 드러남. 		

◆전체 구성

발단	‘황만근’의 실종과, 이로 인한 ‘이장’과 ‘민 씨’의 갈등
전개	‘황만근’의 이타적인 삶
위기	농가 부채 탕감 쟁기 대회에 참가할 것을 권유받는 ‘황만근’
결정	농가 부채 탕감 쟁기 대회에 홀로 참석하러 갔다가 결국 유골로 돌아온 ‘황만근’
결말	‘황만근’의 죽음과 그에 대한 평가

1. ‘황만근’의 실종으로 작품을 시작하는 구성의 효과

‘황만근이 없어졌다.’

- 독자가 작품에 관심을 갖도록 하여 흥미를 유발함.
- ‘황만근’의 생애를 추적하는 구성 방식의 발단으로서 기능하는 효과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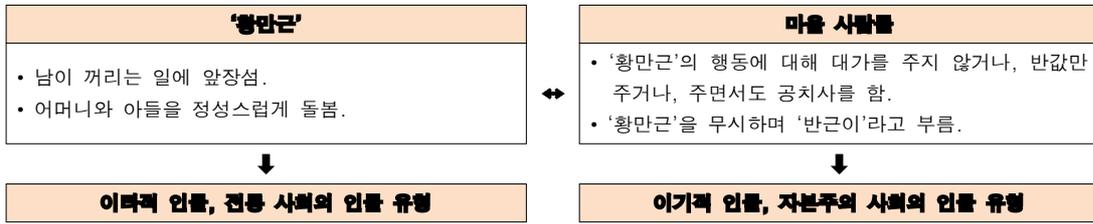
2. 마을 사람들이 ‘황만근’의 부재를 느끼게 되는 계기

‘황영석’	마을 회관 변소에서 분노를 퍼내다가 ‘황만근’의 부재를 인식함.
‘어씨 노인’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익힌 거름을 공정하게 나누어 주었던 ‘황만근’과 달리 ‘황영석’이 거름을 가져다가 자신의 밭에만 뿌리는 모습을 보다가 ‘황만근’의 부재를 인식함.
아이들	소꿉장난을 하던 중 시비를 따질 일이 생겨 ‘황만근’에게 물어보려다가 ‘황만근’의 부재를 인식함.
사람들	‘황만근’을 중얼거리다가 ‘황만근’의 부재를 인식함.

3. ‘민 씨’의 특징과 역할

‘민 씨’의 특징	‘민 씨’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생활을 하다가 귀농한 외지인임. • 마을 사람들과 달리, 사투리를 쓰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만근’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여 전함으로써 간접적인 방식으로 ‘황만근’의 면모를 드러냄. • 마을 사람들과 다르게 ‘황만근’의 훌륭한 성품을 알아봐, ‘황만근’을 바보 취급하는 마을 사람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드러나게 함. • ‘황만근’이 죽은 후 ‘황만근’의 삶과 ‘황만근’의 지혜로움, 근면 성실하며 이타적인 성품, 효성 등에 대해 평가하여 묘비명에 적음으로써 ‘황만근’의 인몰됨을 직접적으로 제시함.

4. '황만근'과 마을 사람들의 대조적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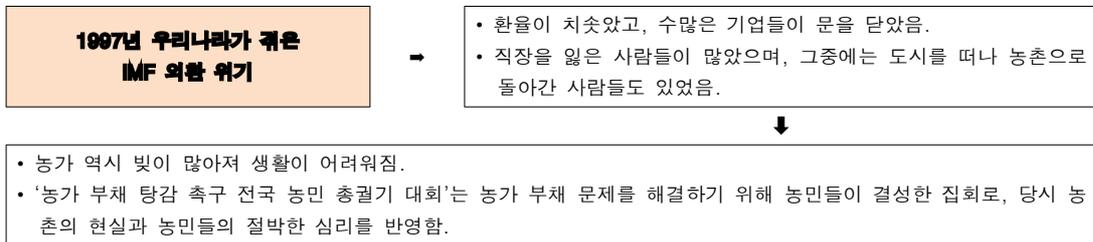
5. '묘비명'의 내용 및 형식의 효과

'묘비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 씨'가 서술한 것으로, '황만근'의 실종과 죽음의 과정이 담겨 있음. • '황만근'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를 제시함.
'묘비명'이라는 형식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물의 죽음을 기리는 효과가 있음. • 본문에서 제시하지 못했던 인물의 행적과 삶을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음. → '황만근'의 실종 및 죽음에 대한 과정 등 독자의 궁금증을 해소함.

6. 이 작품에 나타나는 고전 문학적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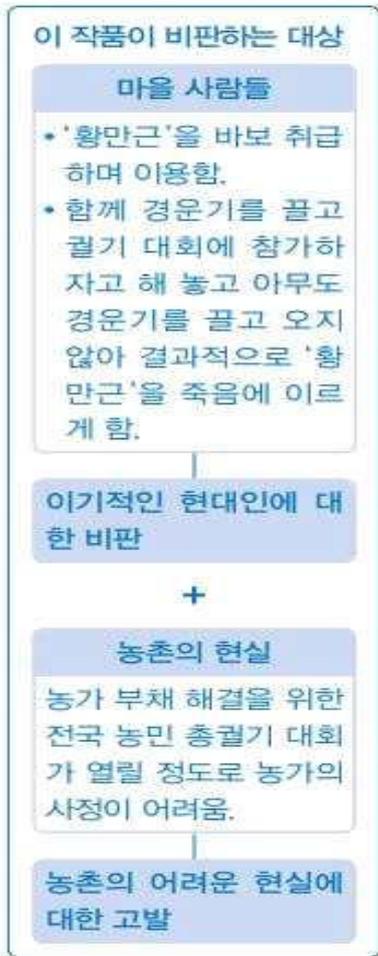
'전(傳)'의 양식	'전(傳)'은 고전 산문의 갈래로, '인물의 행적 → 인물에 대한 평가' 순으로 내용을 구성하는데, 이 작품에서도 '황만근'의 행적이 먼저 제시된 후 '황만근'에 대한 '민 씨'의 평가가 제시됨.		
	인물의 출생과 성장	출생	전쟁 중에 태어난 유복자로, '만근산'에서 따온 이름을 갖고 어머니와 신대리에서 살게 됨.
		성장	어머니를 봉양하고 아들을 돌보면서 살아감.
	인물의 행적	행적	포정, 염습, 산역, 거름 나르기 등의 굶은일에 솔선수범하며,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함.
죽음		농민 쫓겨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경운기를 타고 떠났다가 주검이 되어 돌아옴.	
	↓	인물에 대한 평가 하늘이 내고 땅이 일으켜 세운 인물임.	
비현실적 요소	토끼 귀신이 나타나 '황만근'의 소원 세 가지를 들어주었다는 것은 고전 소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기이한 사건임.		
해학적·풍자적 표현	'황만근'의 우스꽝스러운 말투를 통해 그의 선량한 모습을 해학적으로 표현함과 동시에 '황만근'과 달리 이해타산적인 마을 사람들을 풍자함.		

7. 작품에 반영된 시대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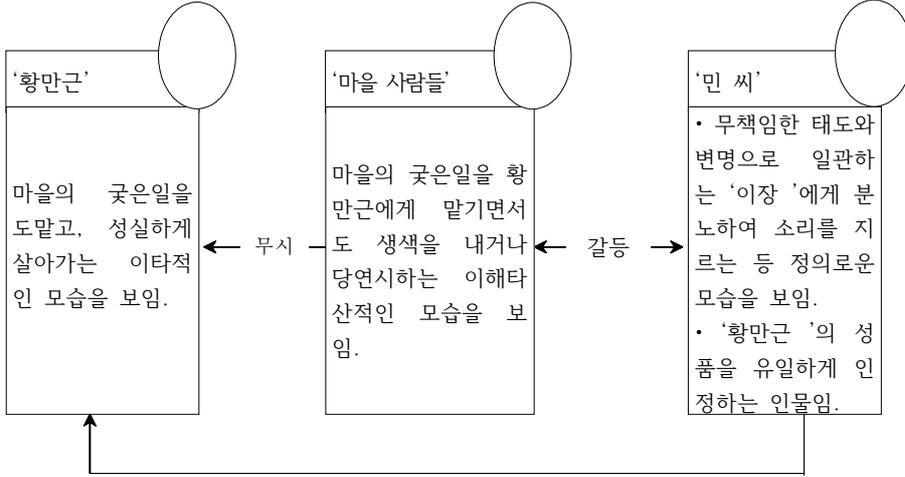
8. 이 작품이 비판하는 대상

이 작품에서는 현대인의 이해타산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민 씨’를 제외한 마을 사람들은 ‘황만근’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고마워할 줄 모르고, 매사에 그를 무시한다. 또한 이 작품에서 농촌의 어려운 현실도 살펴볼 수 있는데, 농가의 심각한 부채 때문에 농민 쫓겨 대회가 열리고 ‘황만근’은 그곳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죽고 만다. 이렇듯 이 작품은 마을 사람들과 농촌의 현실을 보여 주며 이기적인 현대인과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비판하고 고발하고 있다.



“황만근을 이렇게 말했다” 그라신 유일 모습

1. 이 작품을 감상하고, 등장인물들의 성격과 등장인물 간의 관계를 정리해 보자.



(존중)

2. 다음은 이 작품의 시작 부분이다. 주인공인 ‘황만근’의 실종으로 작품을 시작하는 구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황만근이 없어졌다. 새벽에 혼자 경운기를 타고 집을 나간 황만근은 늘 들일을 나가면 돌아오는 시각인 저물녘에 돌아오지 않았다. 술을 마시고 취하더라도 열두 시가 될락 말락 한 한밤이면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아니었다. 평생 단 하루 외박한 뒤 돌아왔던 그 시각, 햇대의 닭이 울음을 그치는 아침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독자 측면의 효과	독자가 ‘황만근’이라는 인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작품에 대해 호기심을 갖도록 함.
내용상의 효과	‘황만근’의 실종 이후 그의 행적을 거슬러 추적하는 과정에서 ‘황만근’의 부재가 부각되고 존재 가치가 강조됨.

3. 이 작품에서 사용한 시점을 파악하고, 해당 시점을 사용한 이유를 주제와 관련하여 말해 보자.

이 작품에서는 전체적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을 사용하고 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을 활용할 경우 ‘황만근’과 주변 인물들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따라서 작가는 ‘황만근’의 삶의 태도를 예찬하고, 마을 사람들의 이기적인 면모를 구체적으로 비판하기 위해 해당 시점을 사용하였을 것이다.

4. 다음 작품과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의 형식적 특징을 비교해 보고, 이와 같은 형식이 대상을 형상화하는 데 어떤 효과를 얻고 있는지 말해 보자.

공방의 사람됨은 겉은 동그렇고 가운데는 네모나며, 세상의 변화에 잘 대응했다. 공방은 한나라에서 벼슬하여 홍려경(鴻臚卿)이 되었다. 당시에 오나라 임금인 비(濞)가 교만하고 참람하여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했는데, 공방이 비를 도와 이익을 취했다. 호제(虎帝) 때에 나라가 텅 비고 창고가 텅 비게 되었는데, 호제가 이를 걱정하여 공방을 부민후(富民侯)로 임명했다. 그 무리인 염철승(鹽鐵丞) 근(僮)과 함께 조정에 있었는데, 근이 항상 공방을 가형(家兄)이라고 부르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공방은 성질이 탐욕스럽고 염치가 없었는데, 이미 국가의 재산을 총괄하면서 자모(子母)의 경중을 저울질하는 것을 좋아했다. 공방은 국가를 이롭게 하는 것에는 도자기와 철을 주조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백성들과 함께 조그만 이익을 다루고, 물가를 올리고 내리고, 곡식을 천대하고, 화폐를 귀중하게 여겼다. 그리하여 백성들이 근분을 버리고 끝을 쫓도록 하고, 농사짓는 것을 방해했다. <중략>

사신(史臣)은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다른 사람의 신하가 된 사람이 두 마음을 품고 큰 이익을 좇는다면 이 사람은 과연 충신인가? 공방이 때를 잘 만나고 좋은 주인을 만나 정신을 모아서 정중한 약속을 맺었고, 생각지도 못한 많은 사랑을 받았다. 당연히 이로운 일을 생기게 하고 해로운 것을 제거하여 은덕을 갚아야 하지만, 비(濞)를 도와 권력을 마음대로 하고 마침내 자신의 무리들을 심었다. 공방의 이러한 행동은 충신은 경계 바깥의 사귀는 없다는 말에 위배되는 것이다. 공방이 죽고 그의 무리들이 다시 송나라에서 기용되어 권력자에게 아부하고 올바른 사람들을 모함했다. 비록 길고 짧은 이치가 하늘에 있다고 해도 원제(元帝)가 공우(貢禹)의 말을 받아들여 한꺼번에 공방의 무리들을 죽였다면, 뒷날의 근심을 모두 없앨 수 있었을 것이다. 다만 공방의 무리들을 억제하지만 하여 후세까지 그 폐단을 미치게 했으니, 어찌 일보다 말이 앞서서 사람은 항상 믿지 못할까를 근심하지 않겠는가?”
 - 임춘, 「공방전(孔方傳)」

두 작품은 모두 '인물의 행적 → 인물에 대한 평가' 순으로 내용이 구성되는 '전'의 형식적 특징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다만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의 경우에는 가계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고, 역순행적 구조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전'의 형식과는 차이가 있다. '전'의 형식을 활용할 경우, 대상에 대한 작가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어 작가의 가치관이나 사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읽을 때 꼭 읽을 만한 문단

1. '황만근'이 없어진 것에 대한 '이장'의 반응은 어떠한가?
'황만근'의 부재보다 소여물을 주지 못하는 것을 더 걱정할 정도로, '황만근'이 없어진 것을 별일 아닌 것으로 여기고 있다.
2. '이장'이 쫓기 대회 전날 '황만근'을 따로 불러 건넨 말은 무엇인가?
내일 열리는 농민 쫓기 대회에 꼭 참석하라는 것이다.
3. '황만근'이 고장 난 경운기를 타고 쫓기 대회에 참석한 것은 무엇을 암시할까?
'황만근'이 고장 난 경운기를 타고 쫓기 대회에 참석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4. '민 씨'가 '이장'에게 버럭 소리를 지른 이유는 무엇인가?
'황만근'에게는 경운기를 타고 가라고 하였으면서 '이장'은 트랙을 타고 갔기 때문이다.
5. '황만근'이 마을에서 한 일을 '황영석', '여씨 노인'을 통해 서술한 것은 서술자가 직접 소개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황만근'의 이타적인 모습과 대조적인 인물들의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황만근'의 착한 성격이 더욱 강조된다.
6. '황만근'이 평생의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황만근'은 공평무사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7. '황만근'이라는 이름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동네의 뿌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곧 '황만근'이 '만근산'과 같이 마을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임을 상징한다.
8. '황만근'에 대한 서술자의 서술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황만근'을 '황 선생'이라고 높여 이르며, 그의 우직하고 이타적인 삶을 예찬하고 있다.
9. 서술자가 '황만근'을 '하늘이 내고 땅이 일으켜 세운 사람'이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
남들에게 무시당하면서도 성실하고 이타적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목적 노트

"기억나는 모든 것을 떠올려 보고 설명하고 써보라"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민 씨는 이장이 쫓겨 대회 전날 황만근을 따로 불러 무슨 말을 건네던 것을 기억해 냈다.
 “그제 밤에 내일 쫓겨 대회 한다고 사람들 모였을 때 이장님이 황만근 씨에게 뭐라고 하셨죠. 모임 끝난 뒤에.”
 이장은 민 씨를 흘기듯 노려보았다.
 “왜 농민 보고 농민 쫓겨 대회 꼭 나오라 했는데, 뭐가 잘못됐나.”
 민 씨는 자신도 모르게 따지는 어조가 되었다.
 “군 전체가 모두 모여도 몇 명 안 되었다면서요. 그런 자리에 황만근 씨가 꼭 가야 합니다. 아니, 황만근 씨만 가야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따로 황만근 씨한테 부탁을 할 정도로.”
 “이 사람이 뭐라 카는 기라. 이장이 동민한테 농가 부채 탕감 촉구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가 있다. 꼭 참석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자 카는데 뭐가 잘못됐단 말이라.”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왔는데 왜 황만근 씨만 못 오고 있나 하는 겁니다.”
 “내가 아나. 읍에 가 보이 장날이더라고. 보나마나 어디서 술 처먹고 주질러 앉았을 끼라. 백 리 길을 강운기를 끌고 갔으이 시간도 마이 걸릴 끼고.”
 다른 사람들은 말이 없었고 민 씨와 이장만이 공을 주고받는 꼴이 되어 버렸다.
 “글쎄, 그 자리에 꼭 황만근 씨만 경운기를 끌고 갔어야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고장 난 경운기를.”
 “강운기를 끌고 오라는 기 내 말이라? 투쟁 방침이 그렇다카이. 강운기도 그렇지. 고장은 무슨 고장. 만그이가 그걸 하루 이를 몰았나. 남들이 못 몬다뿌이지.”
 “그럼 이장님은 왜 경운기를 안 타고 가고 트럭을 타고 가셨나요. 이장님부터 솔선수범을 해야지 다른 동민들이 따라할 텐데. 지금 거꾸로 되었잖습니까.”
 “내사 민사무소에서 인원 점검하고 다른 이장들 하고 의논도 해야 되고 울매나 바쁜 사람인데 강운기를 타고 언제 가고 말고 자빠졌다. 다른 동네 이장들도 민소 앞에서 모이 가고 트럭 타고 갔는 거를. 진짜로 강운기를 끌고 갔으마 군 대회에는 늦어도 한참 늦었지. 군청에 갔는데 비가 와가이곤 사람도 및 없더마. 소리마 및 분 지르고 왔지. 군청까지 강운기를 타고 갈 수나 있던가. 국도에 차들이 미치궤이맹구로 뺨뺨 달리는데 받치만 우애라고. 다른 동네서는 자가용으로 간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국도를 갈 때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경운기를 여러 대 끌고 가자는 거였잖습니까. 시위도 하고 의지도 보여 준다면서요. 허허, 나 참.”
 “아침부터 바쁜 사람 불러내 놓더이. 사람 말을 알아듣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 해사. 누구맹구로 반동가리가 났나.”
 기어이 민 씨는 버럭 소리를 지르고야 말했다.
 “반편은 누가 반편입니까. 이장이니 지도자니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방침을 정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양복 입고 자가용 타고 간 사람은 오고, 방침대로 경운기 타고 간 사람은 오지도 않고, 이게 무슨 경우냐구요.”
 (나) 마을에서 젊은 축에 드는 마흔다섯 살의 황영석은 황만근이 벽돌을 찌고 구덩이를 파서 지은 마을 회관 변소에서 분노를 퍼내면서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만그이 자석이 있었으마 내가 돈을 백만 원 준다 캐도 이런 일을 안 할 낀데. 아이구. 이 망할 놈의 똥 냄새. 여리가 싸 놔 그런지 독하기도 하네. 이기 곡석한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도 모르겠구마.”
 황만근이 있었으면 군말 없이 했을 일이었다. 늘 그렇듯이 병글병글 웃으면서. / “만그이가 있었으마 저 거름이 우리 밭으로 올 낀데. 만그이가 도대체 어데 갔노.”
 마을 회관 곁 조그만 밭에 채소를 심어 먹는 여씨 노인도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황만근은 마을 공통의 분노를, 역시 자신이 판 마을 공통의 분노장으로 가져가서 충분히 익힌 뒤에,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다. 황영석처럼 제가 폼다고 바로 제 밭에 가져가다 뿌리지는 않았다. 특히 여씨 노인처럼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자살이 된 노인들에게는,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더 자주 거름을 가져다주었다.
 또한 동네에 오래도록 내려오는 노래, 구태여 제목을 붙이 자면 ‘황만근가’를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리게 되면서 사람들은 황만근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황만근가, 황만근의 노래, 아니 황만근에 관한 노래는 이렇게 부른다. 먼저 “황” 하고 단호하고 크게 소리쳐서 주의를 끈 다음, 한 박자를 쉬 뒤에 “마안-그은” 하고 두 박자로 느릿하게 부른다. 이어서 “백 분(번), 짝 원(십 원), 여 끈(열 근), 팔 푼, 두 바리(마리)” 하고 빠르게 쟤다. 마지막으로 “그래, 바안-그은” 하고 느긋하게 마친다. 이 노래에는 황만근의 일생이 들어 있고 모든 노래가 그렇다시피 노래를 부르는 마을 사람들의 대체 경험과 정서가 녹아 있다.
 (다) 황만근은 또한 책에 나오는 예(禮)는 몰라도 염습과 산역(山役)같이 남이 꺼리는 일에는 누구보다 앞장을 섰고 동네 사람들도 서슴없이 그에게 그런 일을 맡겼다. 똥구덩이를 파고 우리를 짓고 벽돌을 찌는 일 또한 황만근이 동네 사람 누구보다 많이 했다. 마을 길 풀 깎기, 도랑 청소, 공동 우물 청소…… 용왕제에 쓸 돼지를 산 채로 묶어서 내다가 싫다고 요동질하는 돼지에게 때때웃을 입히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일에는 그가 최고의 전문가였다. 동네의 일, 남의 일, 굶은일에는 연제가 그가 있었다. 그런 일에 대한 댓가는 없거나(동네일인 경우), 반값이거나(다른 사람의 농사일을 하는 경우), 제값이면(경운기와 함께하는 경우) 공치사가 따랐다.
 “반근아, 너는 우리 동네 아이고 어데 인정 없는 대쳐 읍내 같은 데 갔으마 진작에 굶어 죽어도 죽었다. ㉢안만 바보라도 고마워할 줄 알아야 사람이다. 아나 어른이나 너한테는 다 고마운 사람인께 상 찜그리지 말고 인사 잘하고 다니라. 아이?”
 황만근은 황재석씨의 이런 긴 사설을 들을 때조차 병글거렸다. 일이 끝나면 굵신굵신 인사를 했다. 춤을 추듯이, 흥겹게.
 (라) 전날 밤, 분명 꿈은 아니었다. 민 씨는 황만근의 말을 이렇게 들었다. “농사꾼은 빛을 지마 안된다 카이.”
 (한번 빛을 지면 그 빛을 갚으려고 무리하게 일을 벌인다. 동네 곳곳에 텅 빈 우사(牛舍), 마른똥만 뒹구는 축사, 잡초만 무성한 비닐하우스를 보라. 농어민 복지, 소득 향상, 생활 개선? 다 좋다. 그걸 제 돈으로 해야 한다. 제 돈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노름이나 다를 바 없다. 빛은 만근산의 눈덩이,

처마의 고드름처럼 자꾸 커진다.)
 “기계화 영농 카더이마 집집마다 바퀴 달린 기계가 밋이나 되나. 김운기,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거다 탈곡기, 건조기에…… 다 빛으로 산 기라. 농사지 봐야 그 빛 값느라고 정신 없다.”
 “그런 기 다 쌀값에 언차진다. 언차져야 하는데 사실로는 수매하마 먹고살기 간단간당한 돈을 준다. 그 대신에 빛을 준다. 자금을 대준다 카는데 둘 다 안했으마 좋겠다. 둘 다 농사꾼을 바보 멧렁구리로 만든다.”
 (따라서 제대로 된 농사꾼이 점점 없어진다.)
 ㉠ “지 입에 들어갈 양식, 곡식을 짓는 사람이 그 고마운 곡식, 양식한테 장난치겠나. 저도 남도 해로운 농약 뿌리고 비싸고 나쁜 비료 쳐서 보기만 좋은 열매를 뺏으마 그마이가?”
 “내가 왜 빛을 안 졌냐야고. 아무도 나한테 빛 준다고 안 깨. 바보라고 아무도 보증 서라는 이야기도 안 했다. 나는 내 짓고 싶은 대로 농사 지민서 안 망하고 백 년을 살 끼라.”
 일주일 뒤에 황만근은 돌아왔다. 그의 아들이 그를 안고 돌아왔다. ㉡한 항아리밖에 안되는 그의 뼈를 담고 돌아왔다. 경운기도 돌아왔다. 수레는 떼어내고 머리 부분만 트럭에 싣려 돌아왔다. 황만근 아니면 그 누구도 작동시킬 수 없는 그 머리가, 바보처럼 주인을 태우지 않고 돌아왔다.
 - 성석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광남고등학교 (서울)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물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 ② 사투리를 사용하여 토속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③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과 내면을 서술하고 있다.
- ④ 농촌 사회를 배경으로 당대 농촌 현실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작중 인물인 ‘나’가 자신이 경험한 사건을 서술하여 인물을 평가하고 있다.

광남고등학교 (서울)

2. (가)~(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황만근의 실종원인에 대해 이장은 술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민 씨는 이장의 지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 ② 민 씨는 지도자인 이장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말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 ③ 이장은 다수의 행동을 근거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변명하고 있다.
- ④ 마을 사람들은 황만근의 실종을 걱정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불편으로 인식하고 있다.
- ⑤ 민 씨는 황만근이 마을 사람들을 대신하여 혼자만 곶기 대회에 참여하였다가 돌아오지 않고 있음을 걱정하고 있다.

광남고등학교 (서울)

3. 윗글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평소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한 이웃을 배려하는 황만근의 따뜻한 마음을 알 수 있다.
- ② ㉡ : 황만근을 바보 취급하며 이용했던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 ③ ㉠ : 황만근의 수고를 고마워하지 않고 그 가치를 깎아 내리려는 의도를 보여 준다.
- ④ ㉡ : 정직하게 농사짓는 대신, 겉보기에만 좋은 작물을 생산하기 위해 몸에 해로운 농약과 나쁜 비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 : 한 줌의 재가 되어 항아리에 담긴 채로 아들의 품안에 안겨 돌아온 황만근의 허무한 죽음을 나타낸다.

광남고등학교 (서울)

4.

(1) <보기1>의 ㉠, ㉡에 해당하는 것을 (가)~(라)에서 찾아 각각 쓰시오.

<보기1>

㉠ 황만근이 곶기 대회에 참석하기 위한 교통수단이자, 황만근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를 암시하는 소재이다. (3여절로 쓸 것.)

㉡ 황만근의 우스꽝스러운 발음을 그대로 표현한 노래의 제목으로, 황만근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선입견이 오랜 시간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는 노래이다. (4음절로 쓸 것.)

(2) (가)~(라)를 통해 알 수 있는 황만근의 삶의 모습을 <보기2>에서 모두 찾아 쓰시오.

<보기2>

- 이기적 삶의 태도
- 이타적 삶의 자세
- 이해타산적인 모습
- 공동체에 봉사하는 삶의 자세
- 성실하고 정직하게 노동하는 자세
- 무책임한 사람을 비판하는 정의로운 모습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황만근이 없어졌다. 새벽에 혼자 경운기를 타고 집을 나간 황만근은 늘 들일을 나가면 돌아오는 시각인 저물녘에 돌아오지 않았다. 술을 마시고 취하더라도 열두 시가 될락 말락 한 한밤이면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아니었다. 평생 단 하루 외박한 뒤 돌아왔던 그 시각, 햇대의 닭이 울음을 그치는 아침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마을 회관 앞, 황만근이 직접 심어놓은 등나무 덩굴 아래, 직접 짠 평상에 사람들이 모였다. 먼저 이장이 입을 열었다.

“만그인지 반그인지 그 바보 자석 하나 때문에 소여물도 못하러 가고 이기 뭐라. 스무 바리나 되는 소가 한꺼번에 밭 굶는 기 중요한가, 바보 자석 하나가 어데 가서 술 처먹고 집에 안 오는 기 중요한가, 씨그랄.”

마을에서 연장자 축에 들고 가장 학식이 높아 해마다 한 번씩 지내는 용왕제(龍王祭)에 축(祝)을 초(草)하는 황재석씨가 받았다.

“그래도 질래 있던 사람이 없어지마 필시 연유가 있는 기라. 사람이 바늘이라, 모래라, 기양 없어지는 기 어디 있어. 암만 그래도 우리 동네 사람 아이라. 반그이. 아이다. 만그이가 여게서 나서 사는 동안 한분도 밖에서 안 들어온 적이 없는데 말이라.”

“아이지요. 어르신. 가가 군대간다 겠을 때 여운지 토깨인지하고 밤새도록 싸우니라고 하루는 안 들어왔습다.”

용왕제에서 집사 역을 하는 황동수가 우스개처럼 말을 이었다. 아침밥을 먹기도 전 황만근의 아들이 찾아와 황만근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길래 열결에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하게 된 민 씨는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참견을 했다.

“어제 쫓기 대회 한다 하고 간 사람이 누구누구십니까. 황만근 씨하고 같이 간 사람은요? 쫓기 대회 하는 동안 본 사람은 없나요?”

자리에 모인 대여섯 명의 황 씨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더니 모두 고개를 흔들었다.

“사람이라고 밧 밧이나 되나. 군 전체 사람이 모도 모있다는 기 백망이 될라나 말라나 한데 반그이는 돼지고기 반 근만 해서 그런지 안 보이더라간께.”

이장은 계속 빈정거리듯 말을 이었다. 민 씨는 이장이 쫓기 대회 전날 황만근을 따로 불러 무슨 말을 건네던 것을 기억해 냈다.

(나)

“그제 밤에 내일 쫓기 대회 한다고 사람들 모였을 때 이장님이 황만근 씨에게 뭐라고 하셨죠. 모임 끝난 뒤에.”

이장은 민 씨를 흘기듯 노력보았다.

“왜, 농민보고 농민 쫓기 대회 꼭 나오라 겠는데, 뭐가 잘못됐나.”

민 씨는 자신도 모르게 따지는 어조가 되었다.

“군 전체가 모두 모여도 몇 명 안 되었으면서요. 그런 자리에 황만근 씨가 꼭 가야 합니다. 아니, 황만근 씨만 가야 할 이유라도 있습니다. 따로 황만근 씨한테 부탁을 할 정도로.”

“이 사람이 뭐라 카는 기라. 이장이 동민한테 농가 부채 탕감 촉구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가 있다. 꼭 참석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자 가는데 뭐가 잘못됐다 말이라.”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왔는데 왜 황만근 씨만 못 오고 있나 하는 겁니다.”

“내가 아나. 읍에 가 보이 장날이더라고. 보나 마나 여데서 술 처먹고 주질러 앉았을 기라. 백 리 길을 경운기를 끌고 갔으니 시간도 마이 걸릴 기고.”

다른 사람들은 말이 없었고 민 씨와 이장만이 공을 주고받는 꼴이 되어버렸다.

“글쎄, 그 자리에 꼭 황만근 씨만 경운기를 끌고 갔어야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고장 난 경운기를.”

“경운기를 끌고 오라는 기 내 말이라? 투쟁 방침이 그렇다 카이. 경운기도 그렇지, 고장은 무신 고장, 만그이가 그걸 하루 이를 몰았나. 남들이 못 몬다 뿌이지.”

“그럼 이장님은 왜 경운기를 안 타고 가고 트럭을 타고 가셨나요. 이장님부터 솔선수범을 해야지 다른 동민들이 따라할 텐데, 지금 거꾸로 되었잖습니까.”

“내사 민사무소에서 인원 점검하고 다른 이장들하고 의논도 해야 되고 올때나 바쁜 사람인데 경운기를 타고 언제 가고 말고 자빠졌나. 다른 동네 이장들도 민소 앞에서 모이 가고 트럭 타고 갔는 거를. 진짜로 경운기를 끌고 갔으나 군 대회에는 늦어도 한참 늦었지. 군청에 갔는데 비가 와 가이온 사람도 밧 없더마. 소리마 밧 분 지르고 왔지. 군청까지 경운기를 타고 갈 수나 있던가. 국도에 차들이 미치궤이맨구루 썩썩 달리는데 받치만 우애라고. 다른 동네서는 자가용으로 간 사람도 썩어.”

“그러니까 국도를 갈 때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경운기를 여러 대 끌고 가자는 거였잖습니까. 시위도 하고 의지도 보여준다면서요. 허허. 나 참.”

“아침부터 바쁜 사람 불러내 놓더이, 사람 말을 알아듣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 해 싸. 누구맨구로 반동가리가 났나.”

기어이 민 씨는 버럭 소리를 지르고야 말았다.

“반편은 누가 반편입니까. 이장이니 지도자니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방침을 정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양복 입고 자가용 타고 간 사람은 오고, 방침대로 경운기 타고 간 사람은 오지도 않고, 이게 무슨 경우냐구요.”<중략>

(다)

마을에서 젊은 축에 드는 마흔다섯 살의 황영석은 황만근이 벽돌을 찌고 구덩이를 파서 지은 마을 회관 변소에서 분노를 퍼내면서 황만근의 부채를 알게 되었다.

“만그이 자석이 있었으나 내가 돈을 백만 원 준다 캐도 이런 일을 안 할 기네. 아이구, 이 망할 놈의 똥 냄새, 여리가 싸 놔 그런지 독하기도 하네. 이기 곡석한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도 모르겠구마.”

황만근이 있었으면 군말 없이 했을 일이었다. 늘 그렇듯이 병글병글 웃으면서.

“만그이가 있었으며 저 거름이 우리 밧으로 올 기네. 만그이가 도대체 어데 갔노.”

마을 회관 곁 조그만 밧에 채소를 심어 먹는 여씨 노인도 황만근의 부채를 알게 되었다. 황만근은 마을 공통의 분노를, 역시 자신이 판 마을 공통의 분노장으로 가져가서 충분히 익힌 뒤에,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다. 황영석처럼 제가 찢었다고 바로 제 밧에 가져가다 뿌리지는 않았다. 특히 여씨 노인처럼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자살아온 노인들에게는,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더 자주 거름을 가져다주었다.

“만그이한테 물어보자.”

아이들은 소꿉장난을 하다가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공평무사한 것이 황만근의 평생의 처사였다. 그에겐 판단 능력이 없는 듯 했지만 시비를 물으러 가면, 가노라면 언제나 공평무사한 자연의 이법에 대해 깨우치게 되고 분쟁은 종식되었다.

또는 물어보나 마나 ㉠□□□□한 일을 두고도 황만근을 들먹였다.

“만그이도 알 까다.”

또한 동네에 오래도록 내려오는 노래, 구태여 제목을 붙이지 않으면 ‘황만근가’를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리게 되면서 사람들은 황만근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황만근가, 황만근의 노래, 아니 황만근에 관한 노래는 이렇게 부른다. 먼저 “황” 하고 단호하고 크게 소리쳐서 주의를 끈 다음, 한 박자를 쉬 뒤에 “마안-그은” 하고 두 박자로 느릿하게 부른다. 이어서 “백 분(번), 짙 원(십 원), 여 끈(열 근), 팔 푼, 두 바리(마리)” 하고 빠르게 센다. 마지막으로 “그래, 바안-그은” 하고 느긋하게 마친다. 이 노래에는 황만근의 일생이 들어 있고 모든 노래가 그렇다시피 노래를 부르는 마을 사람들의 대체 경험과 정서가 녹아 있다.

(라)

황만근의 어머니와 아들, 조손은 입맛이 까다로워 비린 반찬이 없으면 먹지를 앓는가 하면 비린 반찬이 있으면 밥상머리에서 돌아앉았다. 한 끼에 두 번 상을 차리는 일이 예사였다. 어머니 한 상, 아들 한 상이었고 본인은 상이 없이 먹었다. 황만근은 하루 일이 끝나면 반드시 경운기에 고기를 매달고 집으로 돌아왔다. 일을 하는 동안 눈 주변에서 잡은 붕어나 메기, 미꾸라지, 혹은 메뚜기, 방아깨비라도 짚에 꿰어 들어왔다. 동네에서 이따금 잡는 소나 돼지, 개, 닭, 오리, 토끼 같은 가축 모두 숨을 끊는 것에서부터 내장을 손질하고 뼈에서 살을 발라내는 포정(庖丁)의 업(業)에는 황만근이 반드시 필요했다.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오래도록 자주 하다 보니 어느새 전문가가 된 것이었다. 그는 그런 일을 해 주고 얻어온 고기를 뜨고 굵고 찌고 데치고 삶고 끓이는 데도 이골이 났다. 어쩌다 그가 만든 음식에 숟가락을 대 본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감탄을 하게 마련이었다. 그리고 나서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희한할세, 바보가.” 하는 말을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는 만들어져 있는 조미료를 몰랐지만 재료가 가지고 있는 맛을 흠뻑 우려내어 조화를 시킬 줄 알았다.

황만근은 또한 책에 나오는 예(禮)는 몰라도 염습과 산역(山役)같이 남이 꺼리는 일에는 누구보다 앞장을 섰고 동네 사람들도 서슴없이 그에게 그런 일을 맡겼다. 퐁구덩이를 파고 우리를 짓고 벽돌을 찍는 일 또한 황만근이 동네 사람 누구보다 많이 했다. 마을 길 풀 깎기, 도랑 청소, 공동 우물 청소…… 용왕제에 쓸 돼지를 산 채로 묶어서 내다가 싫다고 요동질하는 돼지에게 때때움을 입히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일에는 그가 최고의 전문가였다. 동네의 일, 남의 일, 굵은일에는 언제나 그가 있었다. 그런 일에 대한 대가는 없거나 (동네일인 경우), 반값이거나(다른 사람의 농사일을 하는 경우), 제값이면(경운기와 함께하는 경우) 공치사가 따랐다.

(마)

“반근아, 너는 우리 동네 아이고 어데 인정 없는 대 처 읍내 같은 데 갔으마 진작에 굶어 죽어도 죽었다. 암만 바보라도 고마워할 줄 알아야 사람이다. 아나 어른이나 너한테는 다 고마운 사람인께 상 찡그리지 말고 인사 잘하고 다니라. 아이?”

황만근은 황재석씨의 이런 긴 사설을 들을 때조차 벋글거렸다. 일이 끝나면 굵신굵신 인사를 했다. 춤을 추듯이, 흥겹게.

그의 집에는 그가 수십 년 동안 만져 온 연장이 그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순서로 잘 정리되어 있었다. 그 연장들 역시 그의 집이나 어머니나 아들과 마찬가지로 그가 매일 돌보는 덕분에 윤기가 흘렀다. 그는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잘 알고 있어서 대부분의 고장은 스스로 고쳤다. 특히 경운기는 초기에 나온 모델로 지금은 부품도 제대로 없는 고물 중의 고물이었지만 자주 망가지는 수레만 열 번 넘게 갈았을 뿐, 엔진이 달려 있는 앞부분은 계속 고쳐 썼다. 그의 경운기는 구식인데다 하도 고친 데가 많아서 그가 아니면 운전은커녕 시동조차 걸 수 없었다.

<중략 부분 줄거리> 그러던 어느 날 농가 부채 해결을 촉구하는 농민 쫓겨 대회가 열리자, 마을 사람들은 도청까지 경운기를 타고 가서 농민들의 결의를 보여 주자고 약속하였다. 황만근은 쫓겨 대회 전날 밤에 민 씨와 술을 마시며 욕심 없이 정직하게 농사를 짓겠다는 소신을 드러내고는, 다음 날 홀로 경운기를 타고 쫓겨 대회가 열리는 도청으로 출발한 뒤로 소식이 끊겨 버렸다.

일주일 뒤에 황만근은 돌아왔다. 그의 아들이 그를 안고 돌아왔다. 한 항아리밖에 안 되는 그의 뼈를 담고 돌아왔다. 경운기도 돌아왔다. 수레는 떼어 내고 머리 부분만 트럭에 실려 돌아왔다. 황만근 아니면 그 누구도 작동시킬 수 없는 그 머리가, 바보처럼 주인을 태우지 않고 돌아왔다.

- 성석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

화원고등학교 (대구)

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잦은 장면 전환을 통해 긴박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② 작품 밖의 서술자가 작품 속 인물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
- ③ 시점의 이동을 통해 인물 간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 ④ 서술의 초점이 되는 인물의 심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 ⑤ 소설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의 경험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고 있다.

화원고등학교 (대구)

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이장'은 '황만근'의 실종보다 소여물 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 ② '마을 사람들'은 '황만근'이 한 음식을 먹어본 후 그 솜씨에 놀라워했다.
- ③ '황영석'은 분노를 거름으로 익힌 뒤 마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 ④ '이장'은 '황만근'이 돌아오지 않은 것은 술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⑤ '여 씨 노인'은 '황만근'과 비교되는 '황영석'의 행동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화원고등학교 (대구)

7. (나)와 (라) 부분의 주된 서사 전개 방식을 쓰고 그 효과를 <조건>에 맞게 완성형 문장으로 쓰시오.

<조건>

ㄱ. '(나)는 주로 ~로 ~고, (라)는 주로 ~로 ~다.'의 구조로 쓸 것.

ㄴ. 그 효과는 구체적으로 쓸 것.

화원고등학교 (대구)

8. ㉞에 들어갈 한자성어를 4음절로 쓰고 그 의미를 <조건>에 맞게 완성형 문장으로 쓰시오.

<조건>

ㄱ. ㉞에 들어갈 한자성어는 한글로 쓸 것

ㄴ. 그 의미는 '~듯이 ~(이)다.'의 구조로 쓸 것.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황만근이 없어졌다. 새벽에 혼자 경운기를 타고 집을 나간 황만근은 늘 들일을 나가면 돌아오는 시각인 저물녘에 돌아오지 않았다. 술을 마시고 취하더라도 열두 시가 될까 말까 한 한밤이면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아니었다. 평생 단 하루 외박한 뒤 돌아왔던 그 시각, 햇대의 닭이 울음을 그치는 아침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중략>

아침밥을 먹기도 전 황만근의 아들이 찾아와 황만근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길래 열걸레 등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하게 된 민 씨는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참견을 했다.

“어제 썰기 대회 한다 하고 간 사람이 누구누구십니까. 황만근 씨하고 같이 간 사람은요? 썰기 대회 하는 동안 본 사람은 없나요?”

자리에 모인 대여섯 명의 황 씨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더니 모두 고개를 흔들었다.

“사람이라고 밋 밋이나 되나. 군 전체 사람이 모도 모았다는 기 백명이 될라나 말라나 한데 반그이는 돼지고기 반근만해서 그런지 안 보이더라니까.”

이장은 계속 빈정거리듯 말을 이었다. 민 씨는 이장이 썰기대회 전날 황만근을 따로 불러 무슨 말을 건넸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제 밤에 내일 썰기 대회 한다고 사람들 모였을 때 이장님이 황만근 씨에게 뭐라고 하셨죠. 모임 끝난 뒤에.”

이장은 민 씨를 흘기듯 노려보았다.

“왜, 농민보고 농민 썰기 대회 꼭 나오라 했는데, 뭐가 잘못됐나.”

민 씨는 자신도 모르게 따지는 어조가 되었다.

“군 전체가 모두 모여도 몇 명 안 되었다면서요. 그런 자리에 황만근 씨가 꼭 가야 합니까. 아니, 황만근 씨만 가야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따로 황만근 씨한테 부탁을 할 정도로.”

“이 사람이 뭐라 가는 기라. 이장이 동민한테 농가 부채 탕감 촉구 전국 농민 총결기 대회가 있다. 꼭 참석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자 하는데 뭐가 잘못됐다 말이라.”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왔는데 왜 황만근 씨만 못 오고 있나 하는 겁니다.”

“내가 야나. 음에 가보이 장날이더라고. 보나 마나 어디서 술 처먹고 주질러 앉았을 끼라. 백 리 길을 경운기를 끌고 갔으이 시간도 마이 걸릴 끼고.”

다른 사람들은 말이 없었고 민 씨와 이장만이 공을 주고받는 꼴이 되어버렸다.

“글쎄, 그 자리에 꼭 황만근 씨만 경운기를 끌고 갔어야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고장 난 경운기를.”

“경운기를 끌고 오라는 기 내 말이라? 투쟁 방침이 그렇다 카이. 경운기도 그렇지, 고장은 무신 고장, 만그이가 그걸 하루 이틀 몰았나. 남들이 못 몬다 뿌이지.”

“그럼 이장님은 왜 경운기를 안 타고 가고 트럭을 타고 가셨나요. 이장님부터 솔선수범을 해야지 다른 동민들이 따라할 텐데, 지금 거꾸로 되었잖습니까.”

“내사 민사무소에서 인원 점검하고 다른 이장들하고 의논도 해야 되고 올매나 바쁜 사람인데 경운기를 타고 언제 가고 말고 자빠졌나. 다른 동네 이장들도 민소 앞에서 모이 가이고 트럭 타고 갔는 거를. 진짜로 경운기를 끌고 갔으마 군 대회에는 늦어도 한참 늦었지. 군청에 갔는데 비가 와 가이고 온 사람도 밋 없더마. 소리마 밋 분 지르고 왔지. 군청까지 경운기를 타고 갈 수나 있던가. 국도에 차들이 미치퀘이맨구루 썩썩 달리는데 받치만 우

“눈물” 문학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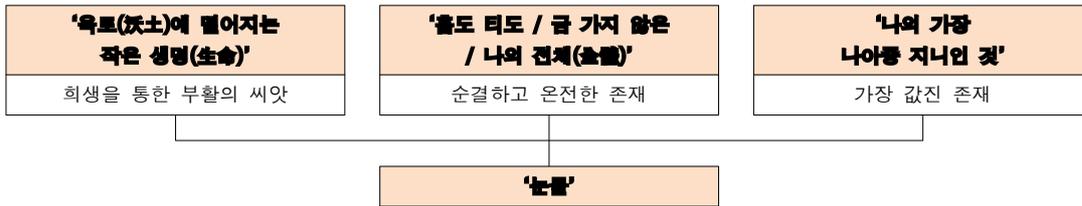
◆핵심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종교적, 명상적, 상징적
제지	눈물, 아들의 죽음		
주제	슬픔의 종교적 승화를 통한 순결한 삶의 추구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유와 대립적 이미지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함. 절대자에게 기원하는 어조와 경어체를 사용하여 경건한 분위기를 형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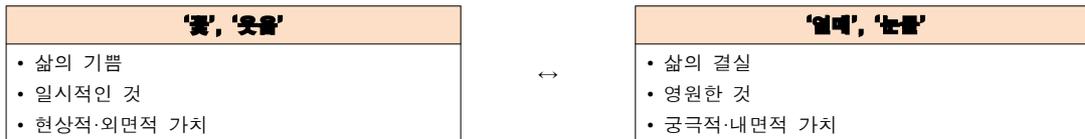
◆전체 구성

1연	2연	3연	4연	5연
순결한 생명에 대한 소망	순수한 존재로서의 눈물	가장 값진 존재로서의 눈물	절대자의 섭리	절대자의 은총으로서의 눈물

1. ‘눈물’을 형상화한 표현과 그 의미



2. 시어의 상징적 의미



더러는

하강의 이미지
 * 옥토(沃土)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生命)이고저..... → 1연: 순결한 생명에 대한 소망

- 원관념: '눈물' → 희생을 통한 부활의 씨앗
- '눈물'의 일반적 의미를 넘어선 긍정적 인식
- 실체가 있는 대상인 '눈물'을 '생명'이라는 추상적인 관념으로 표현함.

흙도 티도
 금 가지 않은 } 순결, 온전함

나의 전체(全體)는 오직 이뿐 → 2연: 순수한 존재로서의 눈물
 일체의 불순함이 없는 순수한 눈물

더욱 값진 것으로 } 절대자를 향한 경건한 자세
 드리라 하올 제

나의 가장 나아중 지나인 것도 오직 이것뿐 → 3연: 가장 값진 존재로서의 눈물
 [시적 허용] 가장 순수하고 값진 눈물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을 보시고
 [: 자연의 섭리를 통해 절대자의 섭리를 깨달음.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 4연: 절대자의 섭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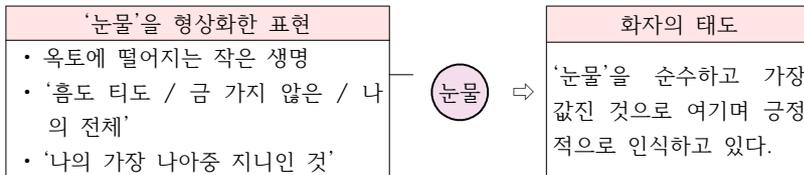
절대자 △ : 삶의 기쁨, 일시적인 것, 현상적·외면적 가치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 : 삶의 결실, 영원한 것, 궁극적·내면적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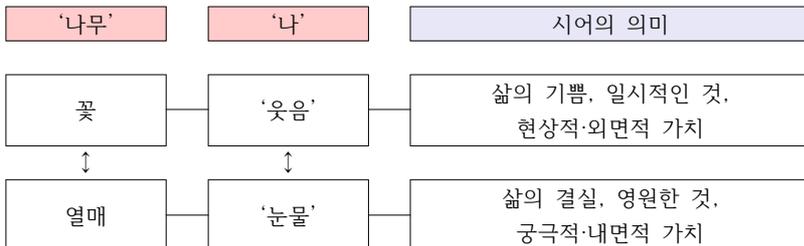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시다. → 5연: 절대자의 은총으로서의 눈물

“눈물” 은과신 시적 모습

1. ‘눈물’을 형상화한 표현을 찾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눈물’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어떠한지 말해 보자.



2. 이 작품에서 서로 대비되어 쓰인 시어를 찾고, 각 시어의 의미를 설명해 보자.



3. 다음은 작가가 이 작품의 창작 배경을 밝힌 글이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작품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말해 보자.

이 시는 내가 그렇게도 아끼던 나의 어린 아들을 잃고 나서 애통하던 중 어느 날 문득 얻어진 시다. 나는 내 가슴의 상처를 믿음으로 달래려고, 그러한 심정으로 썼다. '인간이 신 앞에 드릴 것이 있다면 그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변하기 쉬운 웃음이 아니다. 이 지상에 오직 썩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 앞에서 흘리는 눈물뿐일 것이다.'라는 것이 이 시의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시는 눈물을 좋아하는 나의 타고난 기질에도 잘 맞는다.
- 김현승, 「나의 시, 그 변모의 과정」

작가는 종교를 통해 아들을 잃은 슬픔을 달래려고 이 작품을 창작했다. 그리고 시적 화자는 '눈물'이 신에게 바칠 수 있는 순수하고 영원한 것이라고 말하며, '눈물'을 '열매'라는 삶의 결실에 빗대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종교적 믿음을 통해 슬픔을 극복하고, 슬픔을 통해 성숙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4. 다음 작품을 감상하고, 화자가 처한 상황과 이를 대하는 화자의 태도를 「눈물」과 비교해 보자.

유리(琉璃)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열없이 붙어 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닥거린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 나가고 밀려와 부딪치고,
물 먹은 별이 반짝, 보석(寶石)처럼 박힌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
고운 폐혈관(肺血管)이 찢어진 채로
아아, 너는 산(山)새처럼 날아갔구나!
- 정지용, 「유리창 1」

두 작품의 화자는 모두 자식을 잃은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런데 「눈물」의 화자는 슬픔을 신의 은총으로 받아들이며 극복하고 있는 반면, 「유리창 1」의 화자는 감정을 절제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슬픔과 그리움에 잠겨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더러는
 옥토(沃土)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저……

흙도 티도
 금 가지 않은
 나의 전체(全體)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 제
 나의 가장 나아중 지니인 것도 오직 이것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시다.

- 김현승, 「눈물」

(나)
 ㉠유리(琉璃)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열없이 붙어 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연 날개를 파닥거린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 나가고 밀려와 부딪치고,
 ㉦물 먹은 별이, 반짝, 보석(寶石)처럼 박힌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
 고운 폐혈관(肺血管)이 찢어진 채로
 아아, 나는 ㉨산(山)새처럼 날아갔구나!

- 정지용, 「유리창 1」

달천고등학교 (울산)

6.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경어체를 사용하여 경건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고, (나)는 대화체 형식을 활용하여 시적 대상과의 친밀감을 부각하고 있다.
- ② (가)는 서로 대비되는 시어를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고, (나)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시상을 집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③ (가)는 행위의 반복을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고, (나)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대상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④ (가)는 시적 대상을 만나고 싶은 화자의 소망이 드러나 있고, (나)는 시적 대상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가 시 전체에 깔

려 있다.

- ⑤ (가)의 화자는 성찰을 통해 시적 대상에 대해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시적 대상과의 소통을 통해 슬픔과 안타까움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달천고등학교 (울산)

7.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차단성과 투명성을 가진 소재로 시적 화자와 대상을 단절시키면서도 연결해주는 매체이다.
- ② ㉡은 ㉢과 연결되면서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의 환영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③ ㉣, ㉤, ㉥은 상상으로나마 사랑하는 대상을 만나보기 위한 화자의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④ ㉦은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의 정서를 파도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⑤ ㉧은 화자의 눈물을 ㉨은 화자의 곁을 허망하게 떠나버린 시적 대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달천고등학교 (울산)

8. (나)에서 화자가 '밤에 유리를 닦는 것'은 어떤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인지 시에서 찾아 쓰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이유를 시적 대상과 연관 지어 서술하시오.

주례여자고등학교 (부산)

9.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웃음'과 '눈물'의 관계를 '꽃'과 '열매'의 관계로 대응시켜, '눈물'을 '당신'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있다.
- ② (나)는 '유리를 닦는' 행위를 통해 죽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죽은 아이의 이미지를 '연 날개', '물 먹은 별' 등의 다양한 시각적 이미지로 나타내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감탄사를 사용하여 내면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토로하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 ⑤ (가)는 '당신'으로부터 얻은 깨달음을 통해 (나)는 '유리창'의 이중적 속성을 통해 슬픔을 종교적으로 극복하고 있다.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분석 정리

◆핵심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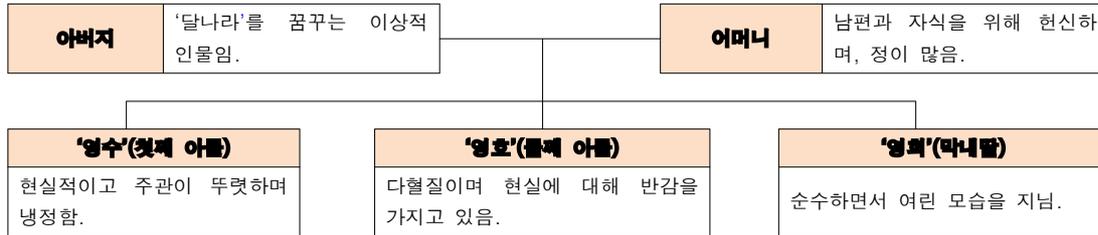
장르	현대 소설, 연작 소설	성격	사회 고발적, 비판적
배경	1970년대, 서울의 재개발 지역(낙원구 행복동)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제재	난쟁이 가족의 궁핍한 삶		
주제	도시 빈민들의 궁핍한 삶과 좌절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삶의 기반을 빼앗기고 몰락해 가는 도시 빈민의 삶을 다룸. 상징적, 반어적 표현으로 주제를 드러냄. 		

◆전체 구성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술자: '나'('영수') 행복동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어 철거 계고장을 받음.
2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술자: '나'('영호') '영희'가 투기업자를 따라 가출함. 난쟁이 가족의 집이 철거됨.
3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술자: '나'('영희') '영희'가 투기업자에게서 임주권을 되찾아 옴. 아버지가 공장 굴뚝에서 죽은 채로 발견됨.

※ 교과서 수록 내용은 '1부'의 일부분임.

1. 등장인물의 성격



2. 철거에 대한 등장인물의 태도



3. 소재의 상징적 의미

'난쟁이'	신체적 장애를 가진 인물로, 그 자체로 사회적 약자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소외되고 가난한 계층을 상징함.
'낙원구 행복동'	난쟁이 가족은 지옥과도 같은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음. 동네 명칭과 실제 삶의 괴리를 통해 비참한 현실을 반어적으로 나타냄.
'폴 냄새', '주머니 없는 옷'	난쟁이 가족의 소외되고 가난한 삶을 의미함.
'고기 굶는 냄새', '주머니가 달린 옷'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난쟁이 가족의 처지와 거리가 먼,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의미함. '폴 냄새', '주머니 없는 옷'과 대비되어 소외된 빈민의 절망적인 삶을 부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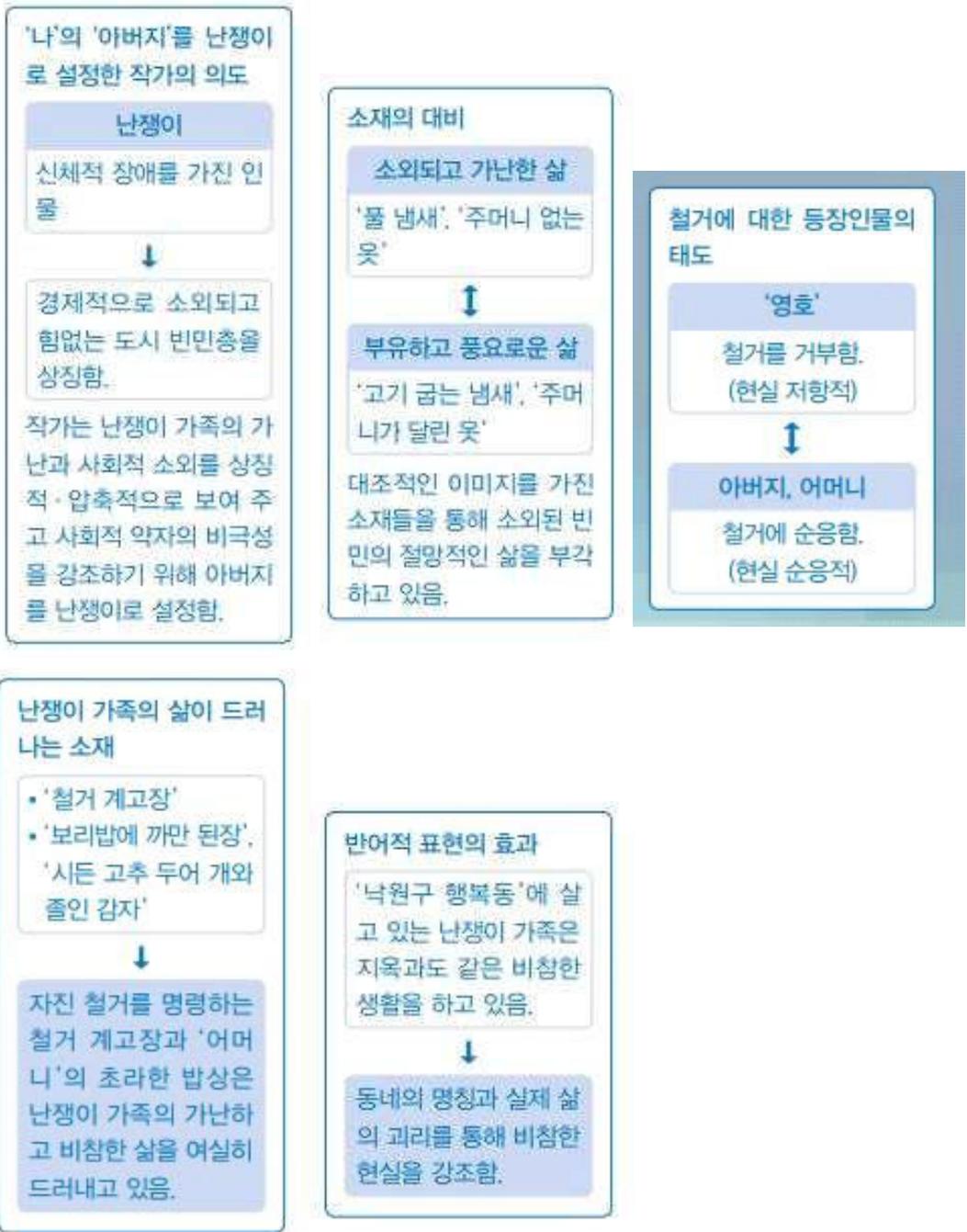
4.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

1970년대 산업화-도시화의 과정에서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몰락해 가는 도시 빈민들이 있었음.

- 난쟁이 가족을 포함한 행복동 주민들이 철거 계고장을 받음.
- 입주권이 있어도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해 입주권을 싼 값에 팔 수 밖에 없음.
- 행복동 주민들이 대부분 행복동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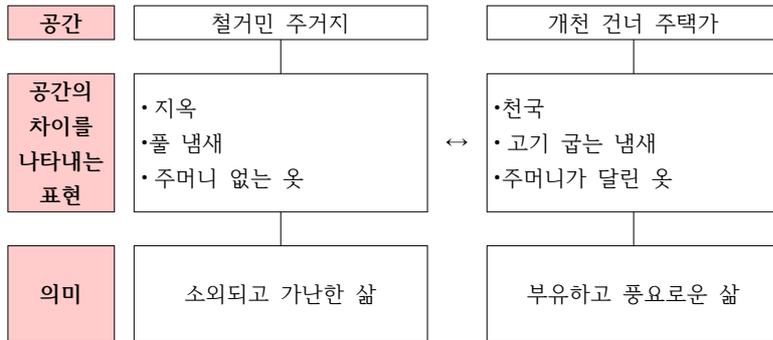
5. 작품의 제목에 담긴 의미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는 작품의 제목은 동화적이고 아름다운 느낌을 준다. 하지만 작품에 제시된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절망적 현실과 약자의 비참한 삶은 제목과 대비되어 산업화 사회의 부정적 현실이 더욱 부각되는 효과를 발휘한다. 또한 ‘작은 공’은 난쟁이의 꿈과 소망을 나타내는데, ‘쏘아 올린 공’은 결국 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에 난쟁이의 절망과 좌절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크라신 문학 모음

1. 이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에서 구분한 공간의 차이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과 그 의미를 정리해 보자.



2. 이 작품에서 ‘나’의 가족이 사는 곳을 ‘낙원구 행복동’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에 대해 말해 보자. ‘낙원구 행복동’이라는 이름은 가난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나’의 가족들의 삶의 모습과 완전히 반대된다. 작가는 이러한 반어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나’의 가족의 빈곤하고 참혹한 삶을 강조하고, 현실의 부조리한 모습을 부각하고 비판하기 위해 이와 같은 이름을 붙였을 것이다.

3. 다음의 사회적 배경 맥락을 고려하였을 때, ‘난쟁이’가 상징하는 의미는 무엇이며 작가가 이 작품을 쓴 의도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급속한 공업·산업·도시화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로 노동자들이 유입되면서 1960년대 말부터 거대한 도시 빈민 주거지가 생겨났다. 이들은 서울의 청계천변과 창신동, 용두동, 봉천동 등에 무허가 판잣집을 짓고 생활하였다. 이로 인해 여러 도시 문제가 발생하자, 서울시는 이들을 집단으로 이주시키기 위해 당시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에 350만 평의 땅(광주 대단지)을 마련했다. 그리고 1969년 9월 1일부터 20평의 땅을 분양해 이곳에 철거민들을 강제 이주시켰다. 신도시에 철거민을 이주시킬 계획이었으니 언덕이 많은 값싼 대지를 마련한 것이다. 게다가 철거민이 이주할 당시 이곳은 상·하수도 시설은 물론, 공중화장실마저 변변하게 마련돼 있지 않았다. 철거민들은 대충 언덕배기에 천막이나 판잣집을 짓고 살았다. 하지만 입주권, 즉 딱지가 전매되고 이 딱지를 얻기 위해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단대천 주변에 천막을 치는 등 부동산 투기가 만연했다. 이렇게 성남시에 몰린 인구는 1971년에 14만~16만 명까지 늘었다.

- 『주간 경향』 1130호(2015. 6. 16.)

‘난쟁이’의 의미	신체적 장애를 가진 인물로,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무력한 도시 빈민 또는 강자에게 억압받는 사회적 약자 등을 상징함.
작가가 이 작품을 쓴 의도	작가는 산업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소외된 도시 빈민의 비참한 삶과 좌절을 보여 주며 당시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문제점을 비판하고자 함.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읽을 때 생각해 볼 질문 모음

1.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난쟁이 가족의 삶은 매일이 싸움과도 같았고, 늘 좌절을 경험했다는 의미이다.
2. 어머니의 밥상에서 짐작할 수 있는 ‘나’의 가족의 처지는 어떠한가?
초라하고 빈곤한 처지이다.
3. ‘주민들’과 ‘아파트 거간꾼들’이 한데 뒤엉킨 이유는 무엇인가?
아파트 입주 공고문이 부착되면서, 이것을 읽으려는 주민들과 입주권을 사고팔려는 거간꾼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4. “애긴 그걸로 끝난 거다.”라는 아버지의 말은 무슨 의미인가?
시에서 진행되는 일이므로 어쩔 수 없다는 뜻이다.
5. ‘나’는 주택가에서 나는 냄새에 대해 어머니에게 왜 물어보았을까?
고기를 먹고 싶었기 때문이다.
6. ‘나’가 아버지를 ‘나쁜 사람’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옷에 주머니를 달아 주지도, 돈이나 먹을 것을 넣어 주지도 못하는 가난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들어서이다.
7. ‘나’의 가문의 내력은 어떠한가?
가족 대대로 노비여서, 괴롭고 힘들게 일하면서도 가난하게 살아왔다.
8. 동네 사람들이 입주권을 파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파트에 입주할 돈이 없기 때문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①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아버지는 난쟁이였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 영호, 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다섯 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다.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다섯 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다섯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켜왔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잘 참았다. ②그러나 그 날 아침 일만은 참기 어려웠던 것 같다.

“통장이 이걸 가져왔어요.”

내가 말했다. 어머니는 조각 마루 끝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게 뭐냐?”

“철거 예고장예요.”

“기어코 왔구나!”

어머니가 말했다.

“그러니까 집을 헐라는 거지?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이제 나온 셈이구나!”

어머니는 식사를 중단했다. 나는 어머니의 밥상을 내려다보았다. 보리밥에 까만 된장, 그리고 시든 고추 두어 개와 졸인 감자.

나는 어머니를 위해 철거 예고장을 천천히 읽었다.

낙 원 구

주택 444, 1- 197x. 9. 10

수신: 서울특별시 ㉠낙원구 행복동 46번지의 1839

김불이 귀하

제목: 재개발 사업 구역 및 고지대 건물 철거 지시

귀하 소유 아래 표시 건물은 주택 개량 촉진에 관한 임시 조치법에 따라 행복 3구역 재개발 지구로 지정되어 서울특별시 주택 개량 재개발 사업 시행 조례 제15조, 건축법 제5조 및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7x. 9. 30까지 자진 철거할 것을 명합니다. 만일 위 기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 대집행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제 철거하고 그 비용은 귀하로부터 징수 하겠습니까.

철거 대상 건물 표시

서울특별시 낙원구 행복동 45번지의 1839

구조 건평 평 끝

낙 원 구 청 장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말이 없었다. ③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가 시멘트 담에 끼여지며 좁은 마당을 덮었다. 동네 사람들이 골목으로 나와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통장은 그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 방죽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어머니는 식사를 끝내지 않은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두 무릎을 곧추세우고 앉았다. 그리고, 손을 들어 부엌 바닥을 한 번 치고 가슴을 한 번 쳤다. 나는 동사무 소로 갔다. 행복동 주민들이 잔뜩 몰려들어 자기의 의견들을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들을 사람은 두셋밖에 안 되는 데 수십 명이 거의 동시에 떠들어대고 있었다. 쓸데없는 짓이었 다.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중략>

어머니는 손바닥에 놓인 표찰을 말없이 들여다보았다. 영희가 이번에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끌었다.

“너희들이 놀게 되지만 않았어도 난 별 걱정을 안 했을 거다.”

어머니가 말했다.

“스무 날 안에 무슨 뽀족한 수가 생기겠니.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지.”

“입주권을 팔려고 그래요?”

영희가 물었다.

“팔긴 왜 팔아!”

영호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럼 아파트 입주할 돈이 있어야지.”

“아파트로도 안 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그냥 사는 거야. 이건 우리 집이다.”

영호는 성큼성큼 돌계단을 올라가 아버지의 부대를 마루 밑에 놓았다.

“한 달 전만 해도 그런 이야길 하는 사람이 있었다.”

아버지가 말했다. 어머니가 내준 철거 예고장을 막 읽고 난 참이었다.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 놔다니가 애긴 그걸로 끝난 거다.”

“그건 우릴 위해서 지은 게 아녜요.”

영호가 말했다.

“돈도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희는 마당가 팬지꽃 앞에 서 있었다.

“우린 못 떠나. 갈 곳이 없어. 그렇지, 오빠?”

“어떤 놈이든 집을 헐러 오는 놈은 그냥 놔두지 않을 테야.”

영호가 말했다.

“그만둬.”

내가 말했다.

④“그들 옆엔 법이 있다.”

아버지 말대로 모든 이야기는 끝나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마당가 팬지꽃 앞에 서 있던 영희가 고개를 돌렸다. 영희는 울고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영희는 잘 울었다. 그때 나는 말했다.

“울지 마. 영희야.”

“자꾸 울음이 나와.”

“그럼. 소리를 내지 말고 울어.”

“응.”

그러나, 풀밭에서 영희는 소리를 내어 울었다. 나는 손으로 영희의 입을 막았다. 영희의 몸에서는 풀 냄새가 났다. 개천 건너 주택가 골목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가 났다. 나는 그것이 고기 굽는 냄새인 줄 알면서도 어머니에게 묻고는 했다.

“엄마, 이게 무슨 냄새야?”

어머니는 말없이 걸었다. 나는 다시 물었다.

“엄마, 이게 무슨 냄새지?”

어머니는 나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는 걸음을 빨리하면서 말했다.

“고기 굽는 냄새란다. 우리도 나중에 해 먹자.”
 “나중에 언제?”
 “자. 빨리 가자.”
 어머니는 말했다.
 “너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고기도 날마다 먹을 수 있단다.”
 “거짓말!”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면서 내가 말했다.
 “아버지는 나쁜 사람야.”
 어머니가 우뚝 섰다.
 “너 방금 뭐라고 했니?”
 “우리 아버지는 나쁜 사람야.”
 “너 매 좀 맞아야겠구나. 아버지는 좋은 분이다.”
 “나도 주머니가 달린 옷을 입고 싶어.”
 “빨리 가자.”
 “엄마는 왜 우리들 옷에 주머니를 안 달아 주지? 돈도 넣어 주지 못하고, 먹을 것도 넣어 줄게 없어서 그렇지?”
 “아버지에 대해 말을 막 하면 너 매 맞을 줄 알아라.”
 “아버지는 악당도 못 돼. 악당은 돈이나 많지.”
 “아버지는 좋은 분이다.”
 “알아.”
 나는 말했다.
 “수백 번도 더 들었어. 그렇지만 이제 속지 않아.”
 “엄마, 큰오빠는 말을 안 들어.”
 영희는 부엌문 앞에 서서 말했다.
 “엄마 몰래 또 고기 냄새 맡으러 갔었대. 나는 안 갔어.”
 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영희를 흘겨보았다. 영희는 또 말했다.
 “엄마. 큰오빠가 고기 냄새 맡으러 갔었다고 말했더니 때리려고 그래.”
 영희는 좀처럼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나는 영희의 입에서 손을 떼었다. 영희를 풀밭으로 끌고 들어간 것이 잘못이었다. 영희를 때려 주고 나는 후회했다. 귀여운 영희의 얼굴은 눈물로 젖었다. 우리는 그때 주머니 없는 옷을 입고 있었다.

<뒷부분 줄거리> 행복동 주민들 대부분은 투기업자에게 입주권을 팔고 동네를 떠난다. 아파트에 입주할 능력이 안 되는 '나'의 가족들 역시 다른 이웃들처럼 입주권을 팔지만, 전세금을 빼 주느라 명희네에게 빌린 돈을 갚고 나니 남는 것이 거의 없다. 그런데 이사 가기 전날 아버지와 영희는 사라지고, 이후 영희는 자기네 집 입주권을 산 남자를 따라갔다가 그 남자의 집에서 돈과 입주권을 훔쳐 도망쳐 나온다. 혼자 동사무소에 가서 입주 신청을 한 영희는 예전에 살던 집으로 돌아오지만, 가족들은 이미 다른 데로 이사를 가 버린 뒤다. 영희는 동네 아주머니로부터 아버지가 그동안 일하던 벽돌 공장 굴뚝에 올라갔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는다.
 - 조세희,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대륜고등학교 (대구)

1. 윗글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육체적 장애를 넘어 사회적 결핍을 의미하는 사회적

약자인 '난쟁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동정과 연민이 드러난다.

- ② ㉡ : '그날 아침 일'에 대한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여 독자로 하여금 뒤에 제시될 사건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다.
- ③ ㉢ : 동네의 명칭과 실제 난쟁이 가족의 삶의 괴리를 통해 비참한 현실을 강조하는 반어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 ④ ㉣ : 난쟁이 가족의 암담한 미래를 암시하고,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산업화의 횡포를 의미한다.
- ⑤ ㉤ : 법이 약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현실이 부조리함과 냉혹함을 드러내고 있다.

대륜고등학교 (대구)

2.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소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작가가 치밀하게 계산하여 설정해 놓은 각 구성 단계를 거치며 전개되는 매우 섬세하고 극적인 재미를 지닌 이야기이다. 바로 이 소설의 구성 단계를 이루는 가장 큰 요소가 갈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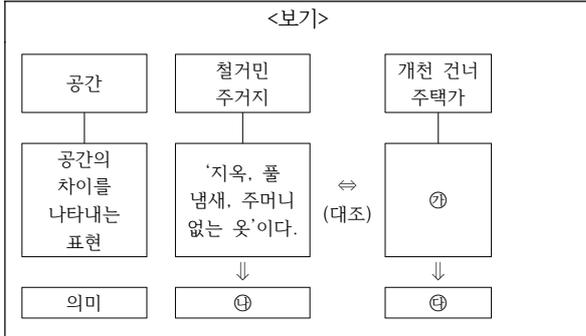
갈등은 인물의 내면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적갈등의 인물과 인물 외적 대상과의 갈등인 외적갈등으로 나눌 수 있다. 외적갈등에는 인물과 인물의 갈등, 인물과 사회와의 갈등, 인물과 자연과의 갈등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사건이 진행되는 가운데 갈등을 일으키는 소재나 상황이 제시되고 갈등의 과정에서 인물들이 보여주는 행동이나 심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이 나타난다. 또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러 사건 해결의 열쇠가 제시되고 갈등과 위기가 해소되면서 주인공의 운명이 결정된다. 또한 사건이 마무리되는 일련의 극적 구성 단계를 거치며 소설의 이야기가 완성되고 이 과정에서 소설의 주제가 드러난다.

- ① 윗글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중심 소재로 제시된 것은 '철거 계고장'이 되겠군.
- ② 윗글의 주된 갈등 양상은 외적갈등 중 인물과 사회의 갈등으로 볼 수 있군.
- ③ '영호'는 갈등 상황 속에서 현실에 체념하는 '어머니', '아버지'와 달리 적극적으로 대항한다는 점에서 저항적인 성격을 가졌음을 알 수 있군.
- ④ '영희'를 때리고 '나'가 후회하는 장면은 갈등이 최고조에 치달는 장면으로 이후 '나'는 '나'의 잘못을 반성하게 되면서 갈등과 위기가 해소되는군.
- ⑤ '난쟁이'의 죽음은 갈등 상황 속에서 인물이 패배했음을 나타내고 이는 도시 빈민의 궁핍한 삶과 좌절이라는 주제로 이어지고 있군.

대륜고등학교 (대구)

3. 윗글을 읽고 윗글에서 구분한 공간의 차이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과 그 의미를 <보기>와 같이 정리하려고 한다. 다음의 <조건>에 따라 서술하시오.



- <조건>
- (1) ㉠에 들어갈 표현 3가지를 완성된 문장으로 모두 서술할 것.
 - (2) ㉡에 '철거민 주거지'가 의미하는 바를 완성된 문장으로 서술할 것.
 - (3) ㉢에 '개천 건너 주택가'가 의미하는 바를 완성된 문장으로 서술할 것.

- ② ㉠ : “그건 우릴 위해서 지은 게 아녜요.”라고 외친 부분에서 약자를 위한 정책이 사실 돈 있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작가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고 이는 그 시대를 예리하게 관찰한 결과라 할 수 있군.
- ③ ㉡ : 어머니가 아버지를 두둔하며 “아버지는 좋은 분이다.”라고 말했지만 무능력한 아버지는 ‘나’에게 있어서는 좋지 않은 가장임에는 틀림없다고 봐.
- ④ ㉢ : 외부이야기에서 내부이야기로 들어가는 액자식 구성보다는 난쟁이의 죽음을 먼저 제시하여 독자의 흥미를 끌고 이후 내막을 이야기하는 역순행적 구성을 쓰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 ⑤ ㉣ : 윗글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이 연대하여 입주권을 팔지 않고 값을 올리거나 세력을 형성하여 조직적으로 대항했다면 상황이 보다 좋아지지 않았을까?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아버지는 난쟁이였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어머니-영호-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다섯 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다.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다섯 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다섯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잘 참았다. 그러나 그 날 아침 일만은 참기 어려웠던 것 같다.

“통장이 이걸 가져왔어요.”

내가 말했다. 어머니는 조각 마루 끝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게 뭐냐?”

“철거 계고장예요.”

“기어코 왔구나!”

어머니가 말했다.

“그러니까 집을 헐라는 거지?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이제 나온 셈이구나!”

어머니는 식사를 중단했다. 나는 어머니의 밥상을 내려다보았다. 보리밥에 까만 된장, 그리고 시든 고추 두어 개와 졸인 감자.

나는 어머니를 위해 철거 계고장을 천천히 읽었다.

<중략>

어머니는 조각 마루 끝에 앉아 말이 없었다.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가 시멘트 담에 꺾어지며 좁은 마당을 덮었다. 동네 사람들이 굴목으로 나와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통장은 그들

대륜고등학교 (대구)

4. 윗글을 <보기>의 ㉠~㉣의 관점에서 수용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공감적 수용	㉠ 특정 상황에 놓인 작품 속 등장인물의 태도나 생각, 행동 등에 대해 이해함.
비판적 수용	㉡ 작품 속에 나타난 작가의 관점이나 가치관 등에 대해 동의하거나 공감함. ㉢ 작가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작품의 내용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수용함. ㉣ 작품의 내용뿐 아니라 작품의 형식에 대해서도 평가하고 비판하며 수용함.
창의적 수용	㉣ 자신의 개성 있는 안목에 따라 작품의 내용을 창의적으로 수용함.

- ① ㉠ : ‘전쟁’으로 자신들의 삶을 표현한 ‘나’의 처지가 매우 안타깝게 다가왔어. 얼마나 힘들면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라고 표현했겠어.

사이를 비집고 나와 방죽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어머니는 식사를 끝내지 않은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두 무릎을 곧추세우고 앉았다. ㉞그리고, 손을 들어 부엌 바닥을 한 번 치고 가슴을 한 번 쳤다. 나는 동사무소로 갔다. 행복동 주민들이 잔뜩 몰려들어 자기의 의견들을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들을 사람은 두셋밖에 안 되는데 수십 명이 거의 동시에 떠들어 대고 있었다. ㉟쓸데없는 짓이었다.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나는 바깥 게시판에 적혀 있는 광고문을 읽었다. 거기에는 아파트 입주 절차와 아파트 입주를 포기할 경우 탈 수 있는 이주 보조금 액수 등이 적혀 있었다. 동사무소 주위는 시장 바닥과 같았다. 주민들과 아파트 거간꾼들이 한데 뒤엉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했다. 나는 거기서 아버지와 두 동생을 만났다. ㊱아버지는 도장포 앞에 앉아 있었다. 영호는 내가 방금 물러선 게시판 앞으로 갔다. 영희는 골목 입구에 세워 놓은 검정색 승용차 옆에 서 있었다. 아침 일찍 일들을 찾아 나섰다가 철거 계고장이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돌아온 것이었다. 누군들 이런 날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버지 옆으로 가 아버지의 공구들이 들어 있는 부대를 둘러메었다. 영호가 다가오더니 나의 어깨에서 그 부대를 내려 옮겨 메었다.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것을 넘겨주면서 이쪽으로 걸어오는 영희를 보았다. 영희의 얼굴은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몇 사람의 거간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아파트 입주권을 팔라고 했다. 아버지가 책을 읽고 있었다. 우리는 아버지가 책을 읽는 것을 처음 보았다. 표지를 찢기 때문에 무슨 책을 읽는지도 알 수 없었다. 영희가 허리를 굽혀 아버지의 손을 잡아끌었다. 아버지는 우리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난쟁이가 간다.”라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말했다.

어머니는 대문 기둥에 붙어 있는 알루미늄 표찰을 떼기 위해 식칼로 못을 뽑고 있었다. 내가 식칼을 받아 반대쪽 못을 뽑았다. ㊲영호는 어머니와 내가 하는 일이 못마땅한 모양이었다. 그러나 마음에 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 주기를 바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어머니는 무허가 건물 번호가 새겨진 알루미늄 표찰을 빨리 떼어 간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괴로운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손바닥에 놓인 표찰을 말없이 들여다보았다. 영희가 이번에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끌었다.

“너희들이 놀게 되지만 않았어도 난 별걱정을 안 했을 거다.”

어머니가 말했다.

“스무 날 안에 무슨 뽕족한 수가 생기겠니.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지.”

“입주권을 팔려고 그래요?”

영희가 물었다.

“팔긴 왜 팔아!”

영호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럼 아파트 입주할 돈이 있어야지.”

“아파트로도 안 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그냥 사는 거야. 이젠 우리 집이다.”

영호는 성큼성큼 돌계단을 올라가 아버지의 부대를 마루 밑에 놓았다.

“한 달 전만 해도 그런 이야기 할 사람이 있었다.”

아버지가 말했다. 어머니가 내준 철거 계고장을 막 읽고 난 참이었다.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 놔다니까 애긴 그걸로 끝난 거다.”

“그건 우릴 위해서 지은 게 아녜요.”

영호가 말했다.

“돈도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희는 마당가 팬지꽃 앞에 서 있었다.

“우린 못 떠나. 갈 곳이 없어. 그렇지, 큰오빠?”

“어떤 놈이든 집을 헐러 오는 놈은 그냥 놔두지 않을 테야.”

영호가 말했다. / “그만둬.”

내가 말했다.

“그들 옆엔 법이 있다.”

아버지 말대로 모든 이야기는 끝나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마당가 팬지꽃 앞에 서 있던 영희가 고개를 돌렸다. ㊳영희는 울고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영희는 잘 울었다. 그때 나는 말했다.

“울지 마. 영희야.”

“자꾸 울음이 나와.”

“그럼. 소리를 내지 말고 울어.” / “응.”

그러나, 풀밭에서 영희는 소리를 내어 울었다. 나는 손으로 영희의 입을 막았다. 영희의 몸에서는 풀 냄새가 났다. 개천 건너 주책가 골목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가 났다. 나는 그것이 고기 굽는 냄새인 줄 알면서도 어머니에게 묻고는 했다.

“엄마, 이게 무슨 냄새야?”

어머니는 말없이 걸었다. 나는 다시 물었다.

“엄마, 이게 무슨 냄새지?”

어머니는 나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는 걸음을 빨리하면서 말했다.

“고기 굽는 냄새란다. 우리도 나중에 해 먹자.”

“나중에 언제?”

“자. 빨리 가자.” <중략>

아버지는 철거 계고장을 마루 끝에 놓고 책을 읽었다. 우리는 아버지에게서 무엇을 바라지는 않았다. 아버지는 그 동안 충분히 일했다. 고생도 충분히 했다. 아버지만 고생을 한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할아버지 - 또 - 대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들은 아버지보다 더 심한 고생을 했을 수도 있다. 나는 공장에서 이상한 매매 문서가 든 원고를 조판한 적이 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짜기 위해 나는 열심히 손을 놀렸다. ‘婢 金伊德의 한 소생 奴 今同 庚寅生, 奴 今同의 양처 소생 奴 金今伊 丁卯生, 奴 今同의 양처 소생 奴 德水 己巳生, 奴 今同의 양처 소생 奴 存世 辛未生, 奴 今同의 양처 소생 奴 永石 癸酉生, 奴 金今伊의 양처 소생 奴 鐵壽 丙戌生, 奴 金今伊의 양처 소생 奴 今山 戊子生.’

나는 그때 이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그 판을 짜고 다음 판을 짜 나가다 겨우 알았다. 노비 매매 문서의 한 부분이었다. 나는 열흘 동안 같은 책을 조판했다. 그 열흘 동안 나는 아버지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하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의 어머니, 어머니의 할머니, 할머니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할머니들이 최하층 천인으로서 무슨 일을 해 왔는지 알고 있었다. 어머니라고 달라진 것은 없었다. 마음 편할 날 없고, 몸으로 치려야 하는 노역은 같았다. 우리의 조상은 세습하여 신역을 바쳤다. 우리의 조상은 상속·매매·기증·공출의 대상이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나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엄마를 잘못 들어 두어 이 고생이다. 아버지하고는 상관이 없단다.”

어머니는 장남인 나에게만 말했다. 외할머니에게 들은 말을 나에게 전한 것이다. 천년을 두고 우리의 조상은 자손들에게 이 말을 남겼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도 씨종의 자식이었다.

할아버지의 아버지 대에 노비제는 사라졌다. 증조부 내외분은 아무것도 몰랐다. 나중에서야 해방을 맞았다는 것을 알았으나 두 분이 한 말은 오히려 “저희들을 내쫓지 마십시오.”였다. 할아버

지는 달랐다. 할아버지는 유습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늙은 주인은 할아버지에게 집과 땅을 주었다. 그러나 쓸데없는 일이었다. 모르는 면에서는 할아버지나 증조부나 같았다. 증조부대까지는 선조들이 살아온 경험이 도움이 되었으나 할아버지 대에는 그것이 도움을 주지 못했다. 할아버지에게는 어떤 교육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다. 할아버지는 집과 땅을 잃었다.

“할아버지도 난쟁이었어?”

언젠가 영호가 물었다.

나는 영호의 머리를 쥐어박았다.

좀 큰 영호는 말했다.

“왜 지난 일처럼 쉬쉬하는 거야? 변한 것이 없는데 우습지도 않아?”

나는 가만있었다.

- 조세희,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주례여자고등학교 (부산)

5.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점을 달리하여 사건을 다각도로 바라보고 있다.
- ② 인물의 행위를 과장되게 서술하여 사건을 희화화하고 있다.
- ③ 대화 장면을 삽입하여 인물의 내적 갈등을 표면화하고 있다.
- ④ 서술자가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주관적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시간의 역전을 통해 인물의 과거 모습을 비판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례여자고등학교 (부산)

6. ㉠ ~ ㉥을 통해 인물들의 심리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집이 철거된 상황에 놓인 '어머니'가 느끼는 절망감과 답답한 심정이 드러나 있다.
- ② ㉡ :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없다는 '나'의 무력감이 나타나 있다.
- ③ ㉢ : 철거를 전후하여 '아버지'의 생각과 심경에 변화가 생겼음을 추측할 수 있다.
- ④ ㉣ : 부조리한 현실(철거)에 대한 '영호'의 불만이 암시되어 있다.
- ⑤ ㉥ : 순수하고 어린 '영희'의 성향을 짐작할 수 있다.

주례여자고등학교 (부산)

7.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작품은 1970년대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전되던 과정에서 소외된 도시 빈민의 궁핍한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당시 경제 발전과 인구 유입 등으로 도시가 확장되면서 중심부와 주변부로 재편되었고, 하층민들은 주변부로 몰리게 되었으며, 끝내 그들의 거주 공간조차 재개발의 대상이 되기에 이르렀다. 집이 주거 본래의 가치보다 투기의 대상으로 간주되면서 도시 주변의 빈민들은 인간적인 삶에서 소외되었다. 작가는 가난한 삶이나마 지켜 내고자 노력하는 '난쟁이' 가족의 모습을 통해 빈민의 비극적인 현실을 드러내고 있으며,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통해 당대의 불평등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다.

- ① '고기 굽는 냄새'와 '풀 냄새'는 각각 도시의 중심부와 주변부의 삶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인물을 신체적 결함을 지닌 '난쟁이'로 설정함으로써 소외된 도시 빈민의 경제적 빈곤을 시각적으로 드러내었군.
- ③ '거간꾼들'이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는 모습은 집이 본래의 가치를 상실하고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군.
- ④ 조상 대대로 힘겹게 살아도 나아진 것이 없는 난쟁이 가족의 내력을 통해 빈곤이 세습되는 불평등한 현실을 폭로하고 있군.
- ⑤ '알루미늄 표찰'을 '말없이 들여다보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가난한 삶이나마 지켜 내고자 적극적으로 애쓰는 인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주례여자고등학교 (부산)

8. 윗글에서 난쟁이 가족의 삶을 비유한 단어 두 가지를 찾아 제시하고, 이와 비교하여 행복동이라는 동네 명칭이 주는 효과를 서술하시오.

<조건>

- 난쟁이 가족의 삶을 비유한 단어 두 가지를 정확히 쓰고, 동네 명칭이 주는 효과를 서술할 것.

1-(1) 모란이 피기까지는

1.③ 2.⑤ 3.④ 4.② 5.⑤ 6.① 7.②⑤ 8.① 9.(1) 역설
 법 (2) 모란이 피는 기쁨과 모란이 질 것이라는 예감
 때문에 슬픔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 10.③ 11.⑤ 12.
 ③ 13.① 14.④ 15.③ 16.② 17.③ 18.㉠: 역설 ㉡: 화
 자의 심리(기쁨과 슬픔의 복합)를 극대화하기 위해
 19.③⑤ 20.⑤ 21.① 22.③ 23.② 24.③ 25.① 26.⑤
 27.⑤ 28.③ 29.④ 30.(가)의 화자는 개인적 차원에서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나)의
 화자는 사회적 차원에서 불의에 맞서 저항하려는 의
 지를 다진다. 31.⑤ 32.③ 33.③ 34.⑤ 35.③ 36.②
 37.② 38.④ 39.④ 40.도치법. 원래 문장은 '나는 아직
 찬란한 슬픔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가 맞는데,
 문장을 도치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한다. 41.① 42.
 ② 43.② 44.⑤ 45.② 46.② 47.모란이 피는 기쁨과
 모란이 질 것이라는 예감 때문에 슬픔을 동시에 느
 끼고 있다. 48.③ 49.① 50.(1) 삶의 목적, 소망, 보람
 (2) 모란 51.② 52.④ 53.③ 54.① 55.① 56.(1)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2)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 57.⑤ 58.① 59.④ 60.(1)
 화자가 유리창에 붙어 서서 낸 입김 자국에서 떠오
 르는 죽은 아이의 영상을 '차고 슬픈 것'과 같이 서
 로 상반되는 감정을 병치하는 대위법을 통해 나타내
 고 있다. (2) '유리'는 단절과 연결의 매개체이다. 죽
 은 아이의 모습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황
 홀하지만 죽은 아이의 모습이 금방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다시 외로운 심정을 느낄 것이라고 볼 수 있
 다. 61.① 62.⑤ 63.② 64.① 65.(1) 산속에서 밤을 맞
 아 본 사람 (2) 펄렁 66.⑤

1-(2) 수오재기

1.③ 2.④ 3.⑤ 4.④ 5.(1) 반어법 (2) 큰형님이 자신의
 '나(吾)'를 지킨 것을 겸손하게 표현했다. 6.③ 7.① 8.
 ② 9.① 10.① 11.④ 12.② 13.④ 14.⑤ 15.④ 16.③
 17.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참된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당신은
 옳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지켰으니
 본질적인 '나'를 지킨 선비입니다. 18.④ 19.④ 20.③
 21.③ 22.② 23.④ 24.㉠, ㉡, ㉢, ㉣ 25.김보화, 노희
 은 26.'기'란 어떤 사건이나 경험의 과정을 기록한 한
 문 문학 양식 중 하나로, 독자에게 교훈이나 깨달음
 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문학 갈래이다. 오
 늘날의 수필에 해당한다. 27.③ 28.④ 29.② 30.① 31.

② 32.③ 33.④ 34.① 35.① 36.⑤ 37.태현, 몸 38.②
 39.⑤ 40.③

1-(3) 산속에서

1.② 2.③ 3.③ 4.④ 5.① 6.⑤ 7.맞잡을 손, 작은 지붕
 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희망
 과 힘을 주는 존재이다. 8.③ 9.① 10.② 11.② 12.불
 빛은 나그네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
 다. 13.⑤ 14.④ 15.㉠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갈아가
 는 따뜻한 마음 ㉡ 타인에게 무관심하고 이기적인
 존재 16.소외된 이웃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평등한
 인간으로 바라보는 것을 뜻한다. 17.② 18.⑤ 19.③
 20.④ 21.④ 22.③ 23.⑤ 24.① 25.④ 26.⑤ 27.①
 28.(1) 어둠, 밤 (2) '나그네'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
 으로 움직일 수 있는 희망과 힘을 심어 주는 것

2-(1) 가는 길

1.⑤ 2.② 3.(1) 호흡이 느리다. (2) 호흡이 빠르다. (3)
 이별의 그리움과 아쉬움이라는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4) 이별을 재촉하는 외부 상황을 효과적
 으로 제시한다. 4.(1) 객관적 상관물이란, 화자가 자신
 의 정서와 사상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가져오
 는 바깥 세계의 대상이다. (2) 까마귀, 강물 5.② 6.④
 7.⑤ 8.④ 9.A는 시행의 길이가 비교적 짧으며, 호흡
 의 속도가 느려서 그리움과 망설이는 화자의 내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B는 시행의 길이가 비교적 길
 며, 호흡의 속도가 빨라서 떠나기를 재촉하여 이별의
 정한을 심화하는 외면적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
 고 있다. 10.② 11.④ 12.(1) '말을 할까 / 하니 그리
 워'에는 행간 걸침을 통해 화자의 망설임을 효과적으
 로 드러낸다. (2) 역설법.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나
 13.④ 14.④ 15.⑤ 16.② 17.⑤ 18.㉠ 타인 ㉡ 이기적
 인 ㉢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과 애정 ㉣ 소외된
 이웃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시간 19.② 20.② 21.
 ⑤ 22.① 23.⑤ 24.이별의 상황에서 느끼는 시적 화
 자의 안타까움과 망설임을 부각한다. 25.(가)의 '까마
 귀'는 화자의 감정과 일치하지 않는 대상으로 이별의
 안타까움을 심화하는 객관적 상관물이며, <보기2>의
 '까마귀'는 화자의 감정과 일치하는 감정이입의 대상
 이다. 26.③ 27.[A]는 낭독의 속도를 늦추어 그리움과
 아쉬움으로 망설이는 화자의 내면적 갈등을 드러내
 며, [B]는 낭독의 속도를 높여서 떠나기를 재촉하여
 이별의 정한을 심화하는 외면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

다. 28.④ 29.① 30.② 31.② 32.④ 33.⑤ 34.③ 35.②
36.① 37.⑤ 38.④ 39.② 40.⑤ 41.①

2-(2)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1.⑤ 2.⑤ 3.② 4.(1) ㉠ 고장 난 경운기 ㉡ 황만근가
(2) 이타적 삶의 자세, 공동체에 봉사하는 삶의 자세,
성실하고 정직하게 노동하는 자세 5.② 6.③ 7.(나)는
주로 대화로 민 씨와 이장 사이의 갈등을 표현하였
고 (라)는 주로 요약으로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고 있
다. 8.명약관화, 그 의미는 불을 보듯이 분명하다는
뜻이다. 9.⑤ 10.⑤ 11.② 12.② 13.⑤ 14.⑤ 15.[A]의
서술자는 작중 인물을 예찬하였으나 [B]의 서술자는
작중 인물을 비판하고 있다. 16.③ 17.④ 18.독자가
황만근이라는 인물에 대해 호기심을 갖도록 하여 작
품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한다. 19.③ 20.① 21.
④ 22.인물에 대한 행적이나 성품을 직접적으로 서술
하여 평가를 드러내기 쉽다. 23.⑤ 24.① 25.⑤ 26.③
27.② 28.③ 29.③ 30.⑤ 31.① 32.⑤ 33.인물의 죽음을
기리면서 본문에서 제시하지 못했던 인물의 행적
과 삶을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34.㉠, ㉡,
㉢ 35.① 36.⑤ 37.③ 38.① 39.⑤ 40.⑤ 41.③ 42.②
43.② 44.⑤ 45.③ 46.① 47.(1) 이장이니 지도자니 하
는 사람들이 모여서 방침을 정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양복 입고 자가용 타고 간 사람은 오고, 방침대로 경
운기 타고 간 사람은 오지도 않고, 이게 무슨 경우냐
구요. (2) 자신의 실력에 따라 시험을 본 학생보다
시험시간에 부정행위를 한 학생이 부정행위를 들키
지 않아 점수가 더 잘 나오는 경우 48.② 49.② 50.
③ 51.③

2-(3) 눈물

1.③ 2.① 3.④ 4.④ 5.1) 화자는 ㉡를 더 가치 있다고
판단한다. 2) ㉠는 일시적이거나 ㉡는 영원하기 때문이
다. 6.② 7.④ 8. 외로운 황홀한 심사, 죽은 아들에 대
한 그리움이라는 점에서 외롭지만 죽은 아들을 떠올
릴 수 있다는 점에서 황홀하다. 9.⑤ 10.④ 11.⑤ 12.
⑤ 13.③ 14.① 15.③ 16.⑤ 17.② 18.③ 19.④ 20.②
21.③ 22.⑤ 23.① 24.눈물, 화자는 웃음과 같은 삶의
기쁨을 일시적인 것으로 여기며 눈물을 순수하고 값
진 긍정적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25.④ 26.⑤ 27.
② 28.(1) ㉠ 열매 ㉡ 웃음 ㉢ 삶의 기쁨, 일시적인 것,
현상적·외면적 가치 ㉣ 삶의 결실, 영원한 것, 궁
극적·내면적 가치 (2) 아아, 님은 갖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29.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
명이고저 30.② 31.④ 32.① 33.④ 34.② 35.② 36.④
37.④ 38.②

2-(4)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1.① 2.④ 3.㉠ '천국, 고기 굽는 냄새, 주머니가 달린
옷'이다. ㉡ 철거민 주거지는 도시 빈민들의 소외되
고 가난한 삶을 의미한다. ㉢ 개천 건너 주택가는 경
제적으로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의미한다. 4.④ 5.
④ 6.③ 7.⑤ 8.난쟁이 가족의 가난한 삶을 비유한 단
어는 지옥, 전쟁이며, 행복동이라는 동네 명칭과 고
통스러운 실제 삶의 괴리를 난쟁이 가족의 가난하고
비참한 현실을 강조한다. 9.② 10.② 11.③ 12.⑤ 13.
② 14.⑤ 15.④ 16.② 17.② 18.② 19.① 20.④ 21.⑤
22.③ 23.④ 24.② 25.④ 26.⑤ 27.② 28.① 29.⑤ 30.
⑤ 31.④ 32.⑤ 33.⑤ 34. ③ 35.① 36.④ 37.② 38.⑤
39.④ 40.①

2-(5) 참새

1.④ 2.⑤ 3.(1) 참새는 백성을 수탈하는 지배층인 탐
관오리를 의미한다. (2) 늙은 홀아비는 힘없는 농민
을 의미한다. (3) 윗글의 작가는 '참새'를 우리 생활과
밀접한 긍정적인 존재로 대하는 반면, <보기>의 작
가는 참새를 백성을 수탈하는 부정적인 대상으로 비
판적으로 바라본다. 4.⑤ 5.③ 6.② 7.② 8.⑤ 9.③ 10.
④ 11.② 12.③ 13.③

2-(6) 꽃 / 라디오같이 사랑을 하고 결 수 있다면

1.④ 2.⑤ 3.② 4.④ 5.④ 6.① 7.③ 8.② 9.작품 (나)는
시상 전개 과정, 문장의 구조 면에서 작품 (가)와 유
사하다. 그러나 시어의 사용과 그 의미에서 차이를
보이며, 진정한 관계 형성을 소망하는 (가)의 주제와
달리 (나)에서는 가볍고 일회적인 현대인의 사랑을
풍자하고 있다. 10.⑤ 11.①④ 12.⑤ 13.④ 14.② 15.
⑤ 16.④ 17.② 18.⑤ 19.⑤ 20.⑤ 21.⑤ 22.③ 23.⑤
24.④ 25.(1) (가)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됨으로써 진정
한 관계를 형성하고 싶은 소망을 드러낸다. (2) 가볍
고 편리한 사랑을 추구하는 현대인을 풍자하고 있다.
26.③ 27.⑤ 28.③ 29.② 30.③ 31.⑤ 32.② 33.① 34.
⑤ 35.② 36.① 37.③ 38.③ 39.① 41.②

2-(7) 파수꾼

1.① 2.③ 3.⑤ 4.첫째, ㉡를 고려할 때 시공간을 초월

1-(1) 모란이 피기까지는

1.③

▶'비로소'와 '하냥'은 모란이 떨어져 봄을 여인 것과 관련된 수식어이므로 '봄을 여인'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음.

2.⑤

▶㉔ : 기다림의 의지적 표현을 직접 표현한 것임.

▶응, 헛갈리지 마!◀

자조 vs 체념 vs 한탄 (★)

*자조: 자기를 비웃음.

*체념: 희망을 버리고 아주 단념함.

*한탄: 원통하거나 누우치는 일이 있을 때 한숨을 쉬며 탄식함.

3.④

ㄷ: 어조의 변화는 없음, ㄹ: 독백이지, 직접 말하는 형식이 아님.

▶어머, 이견 외워야 해!◀

1. 시의 전개 방식 (★)

ㄱ.시간적 전개: 순행적, 역순행적

ㄴ.공간의 이동에 따른 전개: 화자가 직접 이동

ㄷ.시선의 이동에 따른 전개: 근경→원경, 원경→근경

ㄹ.대립적 전개

ㅁ.수미상관식 전개: 처음과 끝이 동일 혹은 비슷

ㅂ.선경후정: 경치+정서

ㅅ.기승전결: 시상을 일으키고 발전과 전환 후 마무리해당 없음.

2. 도치법:

일반적인 문장 성분의 순서를 바꿔 강조하는 표현법.

(사과를 먹다 → 먹다 사과를)

3. 시적 어조(★)

:시적 자아에 의해 표현되는 목소리의 특징.

→시의 분위기나 정서 및 태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음

1)청자의 유무: 독백조, 대화조

2)화자의 유형: 남성적, 여성적 어조

3)청자에 대한 화자의 태도: 명령, 찬양, 의문, 청유 등

4)화자의 감정 상태: 걱정적, 영탄적, 관조적, 애상적, 긍정적 등

5)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 냉소적, 친화적, 비판적, 우호적, 풍자적, 해학적, 반어적 등

4. 상승 이미지 vs 하강 이미지 (★)

*상승 이미지: 피어나는 꽃, 떠오르는 태양 등

(열정, 희망, 활발 등 주로 긍정적)

*하강 이미지: 내리는 비 혹은 눈, 떨어지는 낙엽 등

(이별, 슬픔 등 주로 부정적)

4.②

▶②의 '외로운 눈부심'도 ㉔과 같은 역설임.

① 반어법 ③ 은유법 ④ 대구법, 대조법

◆주제 저장소◆

① <즐거움 편지>: 사랑의 간절함과 불변성에 대한 고백

②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③ <내 마음>: 사랑의 기쁨과 애달픔

④ <풀>: 민중의 끈질긴 생명력

⑤ <해바라기의 비명(碑銘)>: 죽음을 넘어선 열정적인 삶의 추구

▶어머, 이견 외워야 해!◀

1. 반어법 vs 역설법 (★★★)

ㄱ.반어: 겉표현과 속마음이 반대.

(지각한 학생에게 "참 빨리도 왔다"라고 비

꼼)

ㄴ.역설: 겉표현은 모순되지만 깊은 속 뜻 나타냄.

(님은 갔지만 님을 보내지 않았다)

2. 직유법 vs 은유법 (★★★)

ㄱ.직유법: A는 B와 같은 (사과 같은 얼굴)

ㄴ.은유법: A는 B이다 (우리의 지폐는 박물관이다)

3. 통사 구조의 반복 vs 대구법 (★)

ㄱ. 통사 구조의 반복: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

(바람도 없는 공중에~누구의 발자취입니까? / 지리한 장마 끝에~누구의 얼굴입니까?)

ㄴ. 대구법: 비슷한 어구를 짝지 지어 놓는 것 (돌담에 속삭이는 햇살같이 / 풀 아래 웃음짓는 샘물같이)

통사 구조의 반복 중에서 두 어구가 바로 짝을 지어 나타나면 대구법이 됨.

5.⑤

▶모란이 피어서 지는 것으로 끝나지 피고 지는 것이 반복되는 것은 아님.

6.①

▶'나는 아직 기돌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처럼 어순 도치는 있으나 긴박감을 전달하는 건 아님.

▶넣어둬, 패턴 공략◀

<섬세함&부드러움>은 '경어체'를 사용할수록 깊어지며 '명령형' 혹은 '단정적' 말투일수록 멀어진다.

7.②⑤

▶㉔: '비로써'는 자기 희생과 상관없음. ㉔: '아직'은 기다림의 의지적 표현임.

▶어머, 이견 외워야 해!◀

음성 상징어 (★★★)

: 사람이나 동물의 소리를 흉내 낸 말. (의성어/의태어)

<의태어: 대상의 모양, 움직임 흉내>과 <의성어: 대상의 소리 흉내>는 확실히 구분되기도 하지만 한 단어가 의태어로도 의성어로도 쓰일 수 있으니 문맥 속에서 잘 따져야

한다.

퍼덕퍼덕: 큰 새가 가볍고 크게 잇따라 날개를 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부글부글: 많은 양의 액체가 야단스럽게 잇따라 끓는 소리.
 또는 그 모양.

8.①

▶현대시로 자유로운 운율 형성.

▶어머, 이건 외워야 해!◀

1. 3음보 vs 4음보

ㄱ. 3음보: 주로 하층, 빠름, 동적

ㄴ. 4음보: 주로 상층, 느림, 정적

2. 울림소리(★): 모음 전체, ㄴ, ㄹ, ㅁ, ㅇ

▶넣어둬, 패턴 공략◀

시에서 <말의 반복>은 '운율 형성'과 '의미 강조'와 관련된다.

10.③

▶㉔: 모란이 피고 짐에 따라 화자의 정서가 달라지기에 모란과 화자의 정서에 서로 거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① ㉕: 모란(소망, 보람, 삶의 가치)이라는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가장 먼저 내세우고, 그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기다림이 숙명적임을 제시함.

▶어머, 이건 외워야 해!◀

정서적 거리(심리적 거리) (★★★):

주로 시에서 시적 화자의 대상(자연물 등)을 바라보는 태도(마음, 정서)와 관련됨.

ㄱ. 가까운 경우: 대상을 주관적으로 바라봄
 (화자의 감정 이입, 동화, 공감, 친화, 우호, 연민)

ㄴ. 먼 경우: 대상을 객관적 상관물로 바라봄
 (사실적 표현, 관찰, 관조, 이질감, 냉정, 비판, 편집자적 논평, 거리감, 괴리)

11.⑤

▶공간의 대조는 없음.

▶어머, 이건 외워야 해!◀

과장법의 종류

ㄱ. 확대 과장법- 태양 같은 내 마음

ㄴ. 축소 과장법- 내 심장이 쥐꼬리 만해졌다..

12.③

▶㉔과 ㉕은 도치법임.

① 점층법 ② 직유법, 은유법 ④ 반어법 ⑤ 연쇄법

▶어머, 이건 외워야 해!◀

1. 연쇄법 (★)

앞 구절의 끝 어구를 다음 구절의 첫머리에 이어받아 이미지나 심상을 강조하는 수사법.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봐→고인을 못 봐도 예던 길 앞에 있네→예던 길 앞에 있거든 아니 예고 어이리)

2. 점층법 vs 점강법 (★)

ㄱ. 점층법: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비중이나 강도를 점차 높이거나 낮혀 그 뜻을 강조.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ㄴ. 점강법: 내용이 작아지고 좁아지고 약해져서 고조된 감정으로부터 점점 가라앉게 하는 표현.

(우주에서 지구라는 별에 있는 대한민국)

14.④

▶A에는 역설과 도치가 없음.

15.③

▶모란이 피는 봄은 화자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지는 것이지만 봄을 '광복'이라고 불 만한 근거는 없음.

▶어머, 이건 외워야 해!◀

1. 여성적 어조(★):

작가의 정서적 태도나 작품 전체를 지배하는 분위기가 섬세하고 부드러우며, 간절한 바람이나 한, 애상감 따위의 분위기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어조

2. 시의 전개 방식 (★)

ㄱ. 시간적 전개: 순행적, 역순행적

ㄴ. 공간의 이동에 따른 전개: 화자가 직접 이동

ㄷ. 시선의 이동에 따른 전개: 근경→원경, 원경→근경

ㄹ. 대립적 전개

ㅁ. 수미상관식 전개: 처음과 끝이 동일 혹은 비슷

ㅂ. 선경후정: 경치+정서

ㅅ. 기승전결: 시상을 일으키고 발전과 전환 후 마무리해당 없음.

16.②

▶㉔만이 감정 이입(서러운 풀빛)이고 나머지 모두 역설임.

① 외로운 눈부심→역설 ③ 고와서 서러워라→역설

④ 밝은 어둠→역설 ⑤ 외로운 황홀함→역설

▶어머, 이건 외워야 해!◀

1. 객관적 상관물 vs 감정 이입 (★★★)

ㄱ. 객관적 상관물: 대상을 통해 (대상과 유사하거나 일치 혹은 반대되는) 화자의 감정을 드러냄.

ㄴ. 감정 이입: (객관적 상관물 중에서) 화자와 대상을 동일 시 하여 대상과 일치되는 감정을 드러냄.

*'사공은 어디가고 <빈 배>만 매였는가'

*'떨떨 나는 저 <꾀꼬리> / 암수 서로 정다운데 / 외로워라 이 내 몸은'

*'저 <물>도 내 마음과 같아서 울면서 밤길을 흘러가는구나'

외로움을 환기시키는 <빈 배>와 <꾀꼬리> 그리고 슬픔을 나타내는 <물>은 모두 객관적 상관물이다. 이 중 <물>은 화자와 대상을 동일시하는 상태가 뚜렷하기에 감정 이입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2. 반어법 vs 역설법 (★★★)

ㄱ. 반어: 겉표현과 속마음이 반대.